

『이칭일본전(異稱日本傳)』 속의 ‘조선’과 ‘일본’*

김려화**

- I. 서론
- II. 마쓰시타 겐린(松下見林)의 저술 활동과 『이칭일본전』의 편찬
- III. 『이칭일본전』의 두 가지 일본상(日本像)
- IV. 『이칭일본전』에 나타난 조선관(朝鮮觀)
- V.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에도 시대 지식인 마쓰시타 겐린(松下見林)이 편찬한 역사서 『이칭일본전(異稱日本傳)』에 채록된 조선의 기록들이 어떠한 일본상(日本像)을 보여주었는지, 또 이러한 기록들에 대해 편찬자가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겐린은 역사, 신동(神道), 왕릉(王陵), 풍속, 유직(有職), 국어, 목록, 시경(詩經), 의학, 몽학(蒙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술 및 편찬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그의 모든 성과는 ‘일본 연구’를 지향하고 있으며 일본중심적인 학문 경향이 짙었다.

『이칭일본전』 하권(下卷)에서는 15종 조선 문헌 속에서 일본과 관련된 기사를 529조를 발췌하여 인용하였다. 그리고 수록한 문헌과 조목에 따라 편찬자의 고증이나 주관적인 견해를 밝히는 안설(按說)이 252개 정도로 집계된다. 채록된 조선 문헌 속의 일본 관련 기사를 통해 일본의 역사적 이미지가 왜구(倭寇)로 대변되며 강탈적이고 비문명적으로 보여지게 되었다. 이러한 기록에 대해 겐린은 안설이라는 학문적 형식을 선택하여 대응에 나섰다. 그는 조선 문헌 속의 일부 기록들을 부정하고 자국의 입장에서 이를

* 이 논문은 중국교육부사회과학기금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20YJC752007)

** 중국 광둥외어의무대학 남극상학원 부교수

바로잡으려고 하였다. 또한 안설을 통해 조선을 하시(下視)하고, 일본의 위상을 높이려는 시도도 하였다.

겐린의 조선관은 과격하고 극단적인 면이 있다. 동시대 활동한 일본 학자와 비교할 때 겐린 조선관의 가장 큰 특징은 조선 문헌에 밀착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그가 수행한 역사고증 방법이 졸렬한 면이 있지만 그 시대 일본 지식인으로서 색다른 조선관의 일면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핵심어: 마쓰시타 겐린(松下見林), 『이칭일본전(異稱日本傳)』, 조선 문헌, 일본상(日本像), 조선관(朝鮮觀)

1. 서론

『이칭일본전(異稱日本傳)』은 에도 시대 지식인 마쓰시타 겐린(松下見林, 1637~1703)이 1688년에 편찬한 일종의 역사서이다. 1693년 간행되었으며 일본에서 널리 유통되었다. 겐린의 대표작으로 알려진 이 책은 그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이방(異邦) 사람이 일본에 대해 말한 것을 기록한다’¹⁾는 취지로 엮은 것인데 127종의 중국과 조선 서적²⁾ 가운데 일본과 관련된 기록을 발췌하고 편찬자의 안설(按說)을 붙인 것이다.

방대한 외국 문헌을 대상으로 그 속의 자국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하고 또 고증하는 이와 같은 학문적 작업이 17세기 후반에 일찍이 진행되었다는 점이 바로 학자들이 『이칭일본전』에 주목하는 이유이다. 이 책이 간행된 후 여러 일본 지식인들이 마쓰시타 겐린의 발상과 편찬 방식에 따라 속집을 편찬하였다. 최초로 이 책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논문에서는 속집 12종을 조사했다.³⁾ 일부 학자들이 이 책의 영향으로 외국문헌을 기반으

1) “異稱者，取諸異邦之人稱之之語也。” 松下見林, 『異稱日本傳』 영인본, 東京: 國書刊行會, 1926, 6면.

2) 『이칭일본전』에서는 『三國志』를 구성한 『魏書』, 『蜀書』, 『吳書』를 각각 독립된 3부의 서적으로 보고 있다. 관련 선행 연구에서는 이를 하나로 간주하여 인용된 중국서적을 총 125종이라고 본 경우도 있다.

3) 今井啓一, 『松下見林と異稱日本傳』, 『立命館大學論叢』 6, 『歴史地理篇』 2, 1942, 立命館出版

로 한 ‘일본전(日本傳) 시리즈’를 만들고 연구하는 데 성과를 내었다.⁴⁾ 이러한 사실들은 『이칭일본전』이 후세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을 말해준다.

한편 이 책은 일찍이 조선에서도 유통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한치운(韓致淵, 1765~1814)의 『해동역사(海東繹史)』에서는 『이칭일본전』을 상당히 많이 인용하였고⁵⁾ 또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와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의 『임하필기(林下筆記)』에서 모두 이 책을 언급한 바 있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원록(元祿) 6년(1693)에 간행한 『이칭일본전』 혹은, 이 책의 필사본을 소장하고 있다. 청나라 상인이 이 책을 조선에 가져왔다는 설이 있다.⁶⁾

근대에 이르러 마쓰시타 겐린과 『이칭일본전』을 가장 먼저 주목한 사람으로는 이마이 케이이치(今井啓一)와 무카이 켄조(向井謙三)를 들 수 있다. 두 사람은 거의 같은 시기에 겐린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⁷⁾ 이마이 케이이치는 마쓰시타 겐린의 생애와 묘(墓)에 대해 자세하게 조사하였고 『이칭일본전』의 편찬 동기, 인용서목, 관련 속집을 차례대로 소개하였다. 그리고 마쓰시타 겐린이 남긴 저서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정리한 바 있다.⁸⁾ 무카이 켄조도 겐린의 생애와 학문적 경향을 소개하였고 또한 『이칭일본전』에 수록한 15종 조선문헌의 판본과 유입 상황을 추정해 보았다. 그도 역시 겐린의 저술 및 교각서(校刻書) 목록을 부록 형식으로 정리하였는데 이마이 케이이치가 조사한 것과 약간의 차이가 보인다. 요컨대 두 논문이 마

部, 109~149면.

- 4) 石原道博이 ‘異稱日本伝の類書・續編研究’(1966)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撰者不詳の異稱日本伝補遺について』, 『補異稱日本伝の研究』, 『日本外志の寫本四種について』, 『尾崎雅嘉の續異稱日本伝の寫本七種』 등 일련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모두 『茨城大學人文學部紀要・文學科論集』(1970~1973)에 실려 있다. 그리고 그는 和田清와 함께 『舊唐書倭國日本傳・宋史日本傳・元史日本傳』(東京: 岩波書店, 1956)을 공동 編譯하였으며 또 『譯註中國正史日本傳』(東京: 國書刊行會, 1975)을 편찬하였다.
- 5) 김려화, 『『해동역사』 『예문지』의 문헌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32~39면.
- 6) 田中健夫(楊翰球 譯), 『倭寇一海上歷史』,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5, 151면.
- 7) 今井啓一, 『松下見林と異稱日本傳』, 『立命館大學論叢』 6, 『歷史地理篇』 2, 1942, 109~149면; 向井謙三, 『松下見林と朝鮮文獻』(上中下), 『文獻報國』 8권 12호(565~572면), 9권 1호(7~12면), 9권 4호(131~135면), 1942.
- 8) 이마이 케이이치의 논조가 당시 일본이 침략을 위해 제출한 ‘大東亞共榮圈’ 슬로건의 정당성을 노골적으로 옹호하고 있었기에 그가 『이칭일본전』을 보는 시각과 이 책을 상당히 높이 평가했다는 점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쓰시타 겐린과 그의 『이칭일본전』을 연구하는 데 필수한 정보들을 마련하였다. 사실 겐린의 생애에 관해서는 두 논문이 모두 1883년에 편찬한 『선철총담속편(先哲叢談續編)』⁹⁾을 참고하였는데 이 책의 제3권에서는 겐린의 생애와 행적은 물론 그의 학문적 경향과 업적에 대해서도 두루 기술하였다.

1940년대에 발표한 두 논문 이후 『이칭일본전』에 관한 논의도 간혹 보였기 때문에 이 책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의 축적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스기야마 지로(杉山二郎)가 1975년에 간행한 『이칭일본전』 영인본의 끝에 실린 해설을 통해 이 책의 편찬 동기와 의의에 대해 거듭 언급하였다.¹⁰⁾ 또한 미국학자 로널드 토비(Ronald Toby)가 『이칭일본전』의 편찬 배경과 편찬자의 국제인식(國際認識) 그리고 이 책의 영향을 논의하면서 겐린을 국제적 시야를 갖춘 일본 초기 국학가(國學家)로 높이 평가하였으며 『이칭일본전』을 그의 국제사학(國際史學)을 대표하는 성과로 보았다.¹¹⁾ 김시덕은 『이칭일본전』을 비롯한 조·일 양국 간에 전해진 전쟁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문헌 속 실린 군사정보가 양국 내부에서 상대국에 대한 담론 형성에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검토하였다.¹²⁾ 그리고 일각에서 『이칭일본전』에 대한 부분적인 주석 작업도 진행되었는데¹³⁾ 해당 부분 내용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되고 있다.¹⁴⁾ 그러나 아직까지 이 책에 실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듯하다.

『이칭일본전』에는 112종 중국문헌과 15종 조선문헌 속의 일본 관련 기

- 9) 東條耕, 『先哲叢談續編』, 1884 간행,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10) 杉山二郎, 『『異稱日本傳』解説』, 『異稱日本傳』(松下見林 著), 東京: 國書刊行會, 1975, 1555~1559면.
- 11)ロナルド·トビ(Ronald Paul Toby), 『松下見林の元祿型國際史學』, 『異文化理解の視座』(小島孝之·小松親次郎 編),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2003, 57~64면.
- 12) 김시덕, 『전쟁의 문헌학』(ebook), 열린책들, 2021.
- 13) 蓮沼啓介가 『異稱日本傳』에서 인용한 『梁書』, 『三國志』, 『宋書』, 『晉書』 속의 기록과 松下見林의 按說을 대상으로 주석을 다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작업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학술지에 발표하였다. 『異稱日本傳注釋(梁書編)』, 『神戸法學雜誌』 54(2), 2004, 207~238면; 『異稱日本傳注釋(吳志編)』, 『神戸法學雜誌』 54(4), 2005, 329~341면; 『異稱日本傳注釋(宋書編)』, 『神戸法學雜誌』 55(3), 2005, 45~73면; 『異稱日本傳注釋(晉書編)』, 『神戸法學雜誌』 55(4), 2006, 41~46면.
- 14) 일본 학계에서 겐린의 다른 저술을 주목한 연구도 있다. 아베 쿠니오(阿部邦男), 『松下見林著『前王廟陵記』の成立と後世への影響』, 『皇學館論叢』 28(5), 1996, 1~22면; 『松下見林の『前王廟陵記』撰述の機縁』, 『皇學館論叢』 32(2), 2000, 1~22면; 후쿠이 요시히코(福井教彦), 『神道學者としての松下見林-その神社研究をめぐって』, 『神道史研究』 35(3), 1987, 198~216면.

사를 채록하였다. 그리고 ‘금안(今按)’ 두 글자로 시작하는 안설을 통해 인용한 기사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 가면서 편찬자의 견해를 밝혔다. 그렇다면 이 책에서는 중국과 조선 문헌 속의 일본 관련 기록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채록되고 정리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편찬자 겐린이 덧붙였던 안설의 내용이 무엇일까하는 의문 또한 제기된다. 또 한 가지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는 마쓰시타 겐린이 이와 같은 작업을 수행했던 역사적 시각과 의식이다. 그가 외국문헌 속에서 어떤 일본상(日本像)을 찾아냈고 그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그의 자타의식(自我意識)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본고는 선행연구의 성과를 참조하되 『이칭일본전』 속의 구체적인 내용에 집중하여 편찬 양상과 편찬자의 주체 의식의 측면에서 검토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리고 논의 상 편리를 위해 우선 조선 문헌을 다룬 이 책의 하권(下卷)에 드러난 ‘일본상’과 ‘조선관’을 밝히는 것에 목표를 두겠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18~19세기 조선과 일본에서 어느 정도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이칭일본전』에 보이는 일본의 자기상과 타자상, 그리고 그 자기상과 타자상 간의 격차, 또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의 일단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II. 마쓰시타 겐린(松下見林)의 저술 활동과

『이칭일본전』의 편찬

『이칭일본전』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찰하기 전에 먼저 마쓰시타 겐린이 남긴 저술을 통해 그의 학문적 경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칭일본전』의 성립에 있어서 중요한 편찬 배경이자 편찬자 겐린의 편찬의식을 이해하는 필수 정보이기도 하다.

1. 마쓰시타 겐린의 저술과 학문적 경향

유의(儒醫)로 자처했던 겐린에게는 사실 사학자, 신도학자(神道學者), 문

헌학자와 같은 여러 가지 면모가 보인다. 겐린의 자는 제생(諸生)이고 호는 서봉산인(西峯散人)이다. 그는 의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13살 때부터 유명한 의학자 후루바야시 겐기(古林見宜, 1579~1657)의 문하에서 의학과 유학을 공부하였다. 겐기는 제자들에게 의술만 전수하지 않았고 경사와 백가부터 잡전, 패관까지 두루 강의하였다. 문학생 중에 겐린만큼 학업에 정진하고 뛰어난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겐린은 박학다문하여 일찍이 스승을 대신하여 문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스승이 별세한 후 겐린은 『고림견의옹전(古林見宜翁傳)』을 썼는데 여기서 자신과 겐기 간의 사제 관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서술하였다. 특히 17살 때 스승 겐기가 자신에게 경사 서적과 일본의 ‘기전(記傳)’을 연구할 것을 권유하였다고 밝혔는데, 이를 통해 스승의 가르침이 겐린의 학문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다.¹⁵⁾

겐린이 교토(京都)에 있을 때 해마다 나가사키(長崎)에 사람을 보내 외국에서 수입해 온 책을 구입하였다. 그가 소장한 수입 책과 일본 책이 십만 권 정도였다고 한다. 겐린은 당시 학자들이 중국 정사(正史)에 능숙하지만 자국 일본의 역사에 대해 오히려 밝지 못한 현실상황을 개탄하였다. 이런 학풍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에서 출발하여 그는 일본의 ‘기전지학(記傳之學)’, 즉 본토의 역사를 다루는 데 열정을 바쳤다. 풍부한 장서가 겐린이 『이칭일본전』을 편찬할 수 있었던 외적 조건이라면, 일본 역사에 뜻을 두었던 것이 이 책을 편찬하게 된 내적 동기라고 할 수 있겠다.

『이칭일본전』 외에 마쓰시타 겐린은 편찬, 고증, 교각(校刻) 등 작업을 통해 주목 받을만한 학문적 성과를 쌓았다. 그의 저술은 일곱 가지 분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서목을 정리하면 다음 <표1>과 같다. 이를 통해 겐린이 다양한 분야에서 저술 및 편찬 활동을 펼쳤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이 중 대표적인 저술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5) 東條耕, 앞의 책, 『松下見林』, “余時十七, 亦丁寧告曰: 子益勤學, 宜講究經史暨我土記傳矣.”

<표1> 松下見林의 저술 및 분류¹⁶⁾

분류	서목
역사 관련	『本朝學原』(1권), 『諸大臣執柄年表錄』(12권), 『將軍稱制年表錄』(8권), 『異稱日本傳』(3권15책), 『日本紀標註』(1권), 『讀史隨錄』(10권)
神道 관련	『神代卷講述抄』(5권), 『太玉命社記』(1권), 『稜勤仕儀式』(1권), 『古語拾遺』(1권), 『古語拾遺講義』(1권), 『古語拾遺私考』(1권), 『神明帳書後』(1권), 『見林神明帳集釋』(1권), 『中臣祓私記』(1권)
문화 관련	王陵 『前王廟陵記』(3권)
	風俗 『國朝佳節錄』(1권), 『國朝佳節錄補遺』(2권)
	有職 『公事根源集釋』(3권), 『職原抄參考』(5권)
	國語 『神國字原攷』(2권), 『文原』(1권)
	目錄 『國郡諸記分類』(80권)
	詩經 『詩經集註』(8책)
의학 관련	『運氣論奧疏抄』(10권), 『論奧辨證』(3권), 『(見宜翁)醫案』(1권), 『本草沿襲考』(1책)
蒙學 관련	『神國童蒙先習』(1권), 『神國言葉遣式』(2권)
필기·문집	『古林見宜翁傳』(1권), 『雜說考』(1권), 『咄覺集』 ¹⁷⁾ , 『西峯筆記』(2권)
* 校刻書	『校正評閱神代卷』(2권), 『三代實錄』(50권), 『篆字本本草綱目』, 『習醫規格』(1권), 『神名記』(2권)

역사 관련 저술 가운데 『이칭일본전』 외에 『본조학원(本朝學原)』이라는 책도 주목된다. 1권으로 구성된 이 책은 한학의 전래와 발전에 대해 기술한 것인데 내용이 소략하여 나중에 마노 짜나와(眞野時繩)가 주석을 달아 부연 설명을 한 『본조학원랑화초(本朝學原浪華鈔)』도 출간되었다. <표1> ‘역사 관련’ 란에서 보이듯이 겐린은 연표와 역사 수필 등 형식을 통해 일본 역사기록에도 기여하였다. 이러한 역사서 편찬물들을 통해 일본 역사 연구에 대한 그의 지대한 관심과 역사가적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본국 역사에 대한 겐린의 관심은 일본 고유 신앙인 신도(神道) 관련 연

16) <표1>은 今井啓一, 앞의 논문과 向井謙三, 앞의 논문(下)에 실린 松下見林의 저서 목록을 대조한 결과를 정리하고 또 일부 관련 논문을 참조하여 분류 작성한 것이다.

17) 『咄覺集』과 『篆字本本草綱目』의 권수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구로 이어졌다. <표1> 속의 ‘신도 관련’ 란에 기재된 서목뿐만 아니라 ‘교각서’ 란에 적힌 『교정평열신대권(校正評閱神代卷)』과 『신명기(神明記)』가 모두 신도 관련 문헌이다. 사실 겐린은 31살 때부터 신도와 신사(神社)에 관심을 가졌다. 신도의 부흥을 목표로 삼은 그는 실지 답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며 관련 저서를 편찬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통해 겐린은 일본 근세 신도학사(神道學史)에서 주목받은 학자 중의 한 사람이 되었다.¹⁸⁾

<표1> 문화 분야에 정리된 저서들은 다시 왕릉(王陵), 풍속(風俗), 유직(有職), 국어(國語), 목록(目錄), 시경(詩經)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겐린은 일본에서 최초로 왕릉을 고찰하는 작업을 수행하기도 했다. 그의 『전왕묘릉기(前王廟陵記)』는 왕릉과 관련된 64가지 기록과 노인들의 구술, 답사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기반으로 편찬되었다.¹⁹⁾

『국조가절록(國朝佳節錄)』은 『이칭일본전』이 편성되었던 해인 1688년에 간행하였다. 일본의 명절과 풍속에 대해 설명한 책인데 주로 중국과 일본의 전적을 근거로 삼았다고 한다.²⁰⁾ 겐린은 어학, 특히 일본어에도 관심이 많아 일본어에 대한 연구서인 『신국자원고(神國字原攷)』와 『문원(文原)』을 편찬하기도 했다. 그리고 또 80권으로 구성된 목록서 『국군제기분류(國郡諸記分類)』를 편성하였다. 분량만 보더라도 이 책에 방대한 서목 자료를 수록했다는 것이 짐작된다.

마쓰시타 겐린의 저술 가운데 전통 주자학과 관련된 것은 『시경집주(詩經集註)』뿐이다. 겐린이 활동했던 시기는 에도 시대 중에서도 문학이 가장 발달했던 ‘겐로쿠 문학 시대(元祿文學時代, 1688~1703)’이다. 특히 이토 진사이(伊藤仁齋, 1627~1705)를 대표로 하는 고의학과(古義學派)도 이시기 전통 주자학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시경학(詩經學)에 대한 새로운 학문적 탐구를 시도하였다. 그는 ‘시도성정설(詩道性情說)’과 ‘시무정의설(詩無定義說)’을 제출하였으며 에도시대 중기 시경학 연구가 다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였다.²¹⁾ 일각에서 진사이의 학설을 에도 시

18) 福井款彦, 앞의 논문, 60~61면.

19) 阿部邦男, 앞의 논문(1996), 1면.

20) 松下見林, 『跋文』, 『國朝佳節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余嘗爲二三著「公事根源抄義」, 此『佳節錄』者, 有人學通於土庶節令, 問源起, 故引證漢家・本朝, 間加今按, 以應從容之求云爾.”

21) 張小敏, 『伊藤仁齋與日本『詩經』學的轉向』, 『社會科學戰線』(3), 2012, 147~150면.

대 『시경』 연구사의 전환점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진사이 이후로 『시경』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된 상황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문학이 성행하고 전통 주자학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시경』에 대한 다양한 학설이 제출되었던 시기,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감안하면 겐린이 왜 『시경집주』를 편찬하였는지 가늠할 수 있겠다.

겐린은 1665년에 의서 『운기론오소초(運氣論奧疏抄)』와 『논오변증(論奧辨證)』을 편찬하여 간행했다. 두 책은 일본에서 송나라 유온서(劉溫舒)의 『소문입식운기론오(素問入式運氣論奧)』에 대한 연구서로써 잘 알려진 오카모토 이치쿠(岡本爲竹)²²⁾의 『운기론오언해(運氣論奧諺解)』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저술되었다. 겐린은 또한 일찍이 스승 겐기의 의안(醫案)을 정리하여 간인하였다. 그리고 명나라 이정(李梴)이 1575년에 쓴 『습의규격(習醫規格)』도 간인하였다. 『습의규격』이 일본에 유입된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으나 겐린이 이 책을 1668년에 간인하였다고 한다.²³⁾ 이와 같은 의학 업적을 통해 의사로서 겐린의 탁월한 재질과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겐린은 몽학에 관한 저서도 두 종 남겼는데 그 중 『신국동몽선습(神國童蒙先習)』이 조선 문헌과의 관련성에서 볼 때 특히 주목된다. 1693년에 간행한 이 책은 사실 조선의 박세무(朴世茂, 1487~1554)가 편찬한 『동몽선습(童蒙先習)』을 토대로 한 것이다. 겐린은 조선의 초학 아동들을 위해 지은 『동몽선습』 속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고 또 일본의 역사를 개괄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신국동몽선습』을 만들어냈다.²⁴⁾ 그가 이런 작업을 수행했던 이유는 일본에도 조선처럼 중국의 유학 기초교재와 구분되는 자국만의 몽학 교재가 있어야 하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²⁵⁾ 그리고 몽학 교재에서 ‘신국’이라는 단어로 자국을 칭하는 것도 겐린의 신국 사상을 고스란히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초기 선행연구에서는 겐린의 대부분 저술과 교각서가 현존되어 있다고

22) 일본 寶永時代(1704~1710) 의학자이며 岡本一抱라고도 한다. 劉溫舒의 『素問入式運氣論奧』에 대해 諺文으로 주석을 단 『運氣論奧諺解』를 편찬하였다.

23) 裘沛然 主編, 『中國醫籍大辭典(下)』, 上海科學奇術出版社, 2002, 1456면. (百度百科 ‘習醫規格’에서 baike.baidu.com/item/習醫規格/22694571?fr=aladdin 2022년 7월 5일 접속, 재인용)

24) 向井謙三, 앞의 논문(下)에서 『神國童蒙先習』의 편찬 동기와 내용 구성을 자세히 고찰하였다.

25) 김려화, 앞의 논문, 38면.

하였다. 그러나 본고에서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는 몇몇 저서가 있다. 가령 그의 필기와 문집 중 『고림견의웅전』²⁶⁾을 제외한 나머지 세 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마쓰시타 겐린이 편찬하거나 교각·간인한 30여 종 서적 가운데 일부를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것으로 그의 학문적 경향도 대략 파악할 수 있었다. 겐린의 업적이 다양한 분야에 분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든 성과가 ‘일본 연구’에 밀착되어 있다. 다시 말해 겐린은 주로 본국에 대한 학문에만 몰두하였으며 그의 업적에 드러난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일본중심적(日本中心的)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역사는 문화든 모두 일본을 중심으로 일본 고유의 특징을 돋보이게 하는 연구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겐린이 연구대상을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주로 문헌학적인 방법을 택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많은 저술에서 교감(校勘)과 집록(輯錄)으로 대표되는 문헌학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특히 해당 분야의 문헌자료를 수집·정리한 다음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료를 재편찬하여 관련 자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보여주었다. 사실이 두 가지 특징을 겸비하는 것이 겐린이 동시대 다른 일본 학자들과 선명하게 구별되는 특색이기도 하다. 그리고 외국 문헌 속의 자국 관련 기록을 뽑아 모은 『이칭일본전』에는 역시 그의 이와 같은 학문적 성향이 잘 구현되었다고 본다.

2. 『이칭일본전』과 조선 서적

『이칭일본전』은 마쓰시타 겐린이 30여 년 동안의 공력과 정성을 들여 편찬한 책이다. 이 책은 크게 상중하 세 권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각 권은 또 여러 책(冊)으로 나누어져 있다. 상권에는 3책, 중권에는 8책, 하권에는 4책 총 15책으로 구성되었다. 『선철총담속편』에서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계산하여 이 책의 권수를 65권으로 기록하기도 하였으니 그 만만치 않은 분량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칭일본전』의 상권과 중권에는 112종 중국 문헌에서 발췌한 기사와

26) 이 책은 현재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청구기호는 特1-827이다.

겐린의 안설을 수록하였다. 상권은 ‘상지일(上之一)’부터 ‘상지삼(上之三)’까지 62종 문헌 속의 일본 관련 기사를 실었고, 중권은 ‘중지일(中之一)’부터 ‘중지팔(中之一)’까지 50종 문헌 속의 일본 관련 기사를 수록하였다. 전국시대 『산해경(山海經)』부터 시작하여 명나라 말기에 간행된 『등단필구(登壇必究)』까지 역사서, 유서, 시문집, 소설집, 종교 저서, 지방지, 병서, 서예서 등 매우 다양한 문헌자료가 포함된다. 수록한 기사들은 대개 원래 문헌의 성립시기에 따라 서명 뒤에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다. 일부 기사 뒤에 겐린의 안설이 붙어 있다.

그러나 이 백여 종 문헌에 수록된 일본 관련 기사가 수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이칭일본전』에서 확인된 이 문헌들의 인용빈도도 다르게 나타났다. 예컨대 『이칭일본전』에서 인용빈도가 가장 높은 중국책으로는 『민서(閔書)』, 『국조헌정록(國朝獻徵錄)』, 『원사(元史)』, 『명정통종(明政統宗)』을 꼽을 수 있다. 이 책들에 대한 인용횟수는 각각 115회, 77회, 60회, 55회로 조사된다. 그밖에 『불조통기(佛祖統紀)』 21회, 『황명자치통기(皇明資治通紀)』 35회, 『황명이조십사종증보표제평단실기(皇明二祖十四宗增補標題評斷實紀)』 44회, 『양조평양록(兩朝平攘錄)』 37회, 『도서편(圖書編)』 32회, 『무비지(武備志)』 21회와 같이 인용되었는데 인용빈도에 있어서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그 외의 98종 문헌들에 대한 인용횟수는 20회 이하로 확인된다.

『이칭일본전』에서 채록 대상으로 삼은 중국 문헌이 조선 문헌보다 훨씬 많다. 그러나 분량으로만 보았을 때 15종 조선 문헌을 다루는 하권의 비중이 전서에서 3분의 1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구성에 있어서는 조선 문헌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칭일본전』 하권은 ‘하지일(下之一)’부터 ‘하지사(下之四)’까지 네 부분으로 나뉜다. 각 부분에 수록된 문헌의 기본 정보를 다음 <표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2> 『이칭일본전』 하권에 수록한 조선 문헌 관련 정보

순번	권차	채록 서목	채록 기사 건수	편자의 按說 건수	분량 ²⁷⁾
1	卷下之一	『東國通鑑』	60조	61개	85면
	卷下之二	『東國通鑑』	60조	56개	93면

2	卷下之三	『三國史記』	62조	59개	24면
3	卷下之三	『三韓詩龜鑑』	1조	1개	1면
4	卷下之三	『慕齋集』	37조	15개	53면
5	卷下之三	『東文選』	20조	13개	33면
6	卷下之三	『晉山世稿』	3조	2개	4면
7	卷下之三	『東人詩話』	1조	1개	2면
8	卷下之三	『三綱行實圖』	5조	4개	5면
9	卷下之三	『續三綱行實圖』	2조	2개	2면
10	卷下之三	『太平通載』	1조	1개	1면
11	卷下之四	『經國大典』	4조	2개	3면
12	卷下之四	『大典續錄』	5조	[없음]	6면
13	卷下之四	『重刊神應經』	6조	1개	6면
14	卷下之四	『海東諸國記』	230조	24개	83면
15	卷下之四	『懲毖錄』	32조	10개	61면
합계			529조	252개	462면

<표2>를 통해 『이칭일본전』 하권에서 『동국통감(東國通鑑)]을 가장 많이 인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동국통감』 다음으로는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 『징비록(懲毖錄)], 『모재집(慕齋集)], 『동문선(東文選)], 『삼국사기(三國史記)]도 많이 인용된 자료들인데 기타 조선 문헌에 비해 이 여섯 종서적에 대한 『이칭일본전』의 인용횟수와 수록 분량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만큼 이러한 문헌 속에 일본 관련 정보도 많이 수록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무카이 켄조(向井謙三)는 『이칭일본전』에 수록한 조선 문헌들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첫 번째는 겐린이 인용한 문헌들이 당시 일본에 유통되고 있었던 대표적인 조선 문헌이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15종 문헌 가운데 『진산세고(晉山世藁)]와 『징비록』을 제외하면 모두 임진왜란 전에 간행한 문헌이라는 점이다. <표2>에서 제시한 조선 문헌들의 편성시기는 대부분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후반에 집중되어 있다. 이 점에 대해 켄조는 임란의 영향으로 조선에서 많은 문헌들이 소실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세 번째로 『삼한시귀감(三韓詩龜鑑)], 『태평통재(太平通載)], 『신응경(神應經)], 『해동제국기』 등 자료가 『조선도서해제(朝鮮圖書解題)]²⁸⁾

27) 1975년 國書刊行會(東京)에서 간행한 『異稱日本傳』 영인본을 기준으로 한다.

에 수록되지 않은 자료이고, 또 『모재집』, 『진산세고』,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와 『속삼강행실도(續三綱行實圖)』 등은 켄조가 논문을 작성했던 1942년 당시까지 활자본으로 간행하지 않은 자료인데 모두 『이칭일본전』으로 인해 쉽게 그 일단을 볼 수 있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²⁹⁾

여기에서 켄조가 밝힌 첫 번째 특징에 대해 조금 부연 설명을 하고자 한다. 17세기 조선 문헌이 공식적인 구청을 통해 일본에 유입된 경로와 규모에 대한 선행 연구가 있는데,³⁰⁾ 이를 통해 켄린이 활동했던 시대에 일본에서 조선 서적이 어느 정도 유통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같은 시기 잘 알려진 학자 이토 진사이를 중심으로 한 일본 지식인 그룹에서 조선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정리한 문헌들이 제작된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진사이의 장자 이토 도가이(伊藤東涯, 1670~1736)가 조선 관련 서적을 여러 편 저술하였으며 1704년에 편성한 것으로 추정된 『삼한기략(三韓紀略)』에서도 조선 문헌을 상당히 참조하였다는 사실도 이러한 상황을 입증하고 있다.³¹⁾ 따라서 『이칭일본전』에 수록된 조선 서적들이 당시 대표적인 조선 문헌이라고 하는 켄조의 견해는 수정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이 책에 수록된 조선 문헌들은 켄린이 편찬 작업을 수행할 당시 그가 접할 수 있었던 조선 문헌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설명이라 할 것이다.

한편 『이칭일본전』에서 참고한 조선서적 중에는 관찬(官撰) 서적이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동국통감』과 『삼국사기』는 모두 관찬 역사서이고 『삼강행실도』와 『속삼강행실도』는 왕명에 따라 편찬한 교화서이며 『경국대전』과 『대전속록』은 나라에서 편찬한 법전이다. 그리고 『동문선』, 『중간신응경』, 『해동제국기』 역시 왕명으로 편찬되거나 간행한 서적이다. 요컨대 열다섯 종의 서적 가운데 아홉 종은 국가 차원에서 편찬된 문헌이

28) 向井謙三, 앞의 논문(中)에서 『조선도서해제』에 대해 더 구체적인 정보를 밝히지 않았으나 아마도 1932년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하고 조선통신사에서 간행한 자료일 것이다. 현재 이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29) 向井謙三, 위의 논문(中), 7면.

30) 이유리, 『倭人求講齋錄』에 나타난 조선 서적의 일본 전래, 『서지학보』 37, 한국서지학회, 2011, 105~135면.

31) 이효원, 『일본 유학자의 조선 연구-伊藤東涯의 『三韓紀略』에 대하여』, 『한국한문학회연구』 66, 한국한문학회, 2017, 107~110면.

다. 따라서 이들 문헌 속 내용에 투영된 이데올로기는 조선 왕조 지배층의 역사관이나 편찬의식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가지 짚어야 할 점이 있는데 이 문헌들은 『이칭일본전』에서 서적의 종류나 편찬 시기에 따라 일정한 순서로 배치된 것이 아니라 편찬자의 주관적인 선호도에 따라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III. 『이칭일본전』의 두 가지 일본상(日本像)

앞서 언급했듯이 『이칭일본전』의 내용은 인용 대상으로 삼은 전거(典據) 속의 기사와 마쓰시타 겐린의 안설로 구분된다. 인용한 부분은 대개 전거 속의 기사를 그대로 옮기거나 축약한 것이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이칭일본전』 하권에서 전거를 인용한 기사 내용과 겐린의 안설 내용에는 대조적인 서술이나 견해가 적지 않게 확인된다는 점이다. 이는 조선 문헌에 실린 기사에 투영된 일본상(일본의 역사적 이미지)이 찬자의 안설에 드러난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에 조선 문헌에서 뽑아온 기사와 겐린이 쓴 안설을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이칭일본전』 하권에 담은 두 가지 일본상을 밝히고자 한다.

1. 조선 문헌 속의 ‘일본’

『이칭일본전』의 전거 사료로 삼은 조선 문헌에는 일본에 대해 어떤 기사들이 실렸을까. 그러한 기사들을 통해 형성된 일본상이 어땠을까. 사실 전거 사료의 성격에 따라 실린 기사 내용도 다양할 것임이 짐작된다. 우선 『이칭일본전』 하권의 거의 절반 분량을 차지한 『동국통감』에 대한 채록 상황부터 알아보겠다. 56권으로 이루어진 『동국통감』에 일본 관련 기록이 다른 어느 조선 문헌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이칭일본전』에서 첫 번째 전거 사료로 수록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³²⁾ 『동국통감』에 기록된 조선의 역사는 단군조선부터 고려말까지인데 일본 관련 기록들은 삼국시대부터 확인된다.

32) 『동국통감』의 일본 수용사에 대해 김시덕, 앞의 책에서 다룬 바이다.

『이칭일본전』의 권하지일(卷下之一)에서 인용한 『동국통감』 속의 기사 정보를 도표화해 보면 아래 <표3>들과 같다.

<표3-1> 『異稱日本傳』 卷下之一에 인용된 『東國通鑑』 『三國紀』의 기사와 출처

순번	연도	기사 주요 내용	『東國通鑑』 출처
1	B.C.50년	倭가 왕이 神德이 있다는 말을 듣고 돌아갔다.	권1 三國紀
2	B.C.20년	瓠公이 馬韓을 聘問하였다.	
3	8년	신라왕이 長女를 昔脫解에게 시집보냈다.	
	14년	倭가 신라의 변경을 침범하였는데 신라가 천인을 징발하여 방어했다. 낙랑이 그 틈을 타 金城을 공격하였으나 실패하였다.	
4	73년	倭가 木出島를 침범하니, 왕이 角干 羽鳥를 보내어 막았으나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	권2 三國紀
5	157년	迎鳥와 細鳥가 표류하여 日本國 섬에 이르러 왕과 왕비가 되었는데 그들을 日月之精이라 하여 縣을 설치하였다.	권3 三國紀
6	233년	伊浪 于老가 바람과 불로 변방을 침략한 倭賊을 막았다.	
7	249년	倭가 于老를 죽였는데 于老의 妻가 복수하였다. 權近과 찬자의 평어.	권3 三國紀
8	294년	倭가 신라의 長峯城을 공격하였으나 실패했다.	
9	295년	왕이 百濟와 함께 왜를 공격하려고 하였으나 弘權의 諫言으로 그만두었다.	
10	300년	신라에서 倭國과 交聘하였다.	권4 三國紀
11	312년	倭가 신라에 請婚하므로, 阿浪 急利의 딸을 보내었다. 찬자의 평어.	
12	344년	倭가 신라에 사신을 보내어 請婚하였으나 회보하지 않았다.	
13	345년	倭가 신라에 글을 보내어 絶交하였다.	권4 三國紀
14	346년	倭가 신라의 風島, 金城을 침공하였는데 왕이 康世의 건의를 수용하여 왜를 패주시켰다.	
15	364년	신라왕이 허수아비와 복병을 이용하여 왜군을 격퇴하였다.	
16	393년	倭가 金城을 5일 동안 포위하자 왕이 閉門固守한 후 勇騎와 步卒를 보내어 왜를 패배시켰다.	
17	397년	백제가 倭와 우호를 맺고 태자 腆支를 보내어 볼모로 삼게 하였다. 權近의 평어.	
18	402년	신라에서 末斯欣을 倭에 볼모로 보냈다.	
19	405년	백제의 태자 腆支가 倭國에서 돌아와 왕이 되었다.	

20	408년	신라왕이 末斯品の 계책에 따라 對馬島에 주둔한 왜군을 먼저 공격하지 않았다.	
21	412년	신라왕이 末斯欣의 형 卜好를 고구려에 볼모로 보냈다.	
22	418년	朴堤上은 고구려에 가서 卜好와 함께 신라로 돌아왔다. 朴堤上은 倭에 갔다가 죽고 末斯欣은 신라로 돌아왔다. 찬자의 평어.	
23	444년	신라왕이 倭賊을 추격하다가 패하였으나 안개로 살았다.	
24	459년	倭가 兵船으로 습격하였으나 신라왕이 月城을 굳게 지켜 적을 패배시켰다.	
25	463년	倭가 敵良城 침략에 실패하여 돌아갈 때 신라왕이 伏兵으로 왜적을 크게 패배시켰다.	
26	659년 660년	신라에서 백제를 치려고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군사를 청하였다. 3월부터 9월까지 당나라와 신라의 군사가 협력하여 백제를 쳤다.	권7 三國紀
27	661년	정월부터 8월까지 당나라와 신라가 협력하여 고구려, 백제를 쳤다.	
28	662년	金庾信이 신라군을 이끌고 平壤으로 進軍하였다. 당나라의 龐孝泰가 고구려와 싸우다가 죽었다. 당나라 蘇定方이 平壤의 포위를 풀고 돌아갔다.	
29	662년	耽羅國主人 佐平 徒冬音律이 신라에 조빙하였다.	
30	662년	신라왕이 백제를 평정하고 大赦令을 내렸다. 당나라 劉仁願이 熊津을 중심으로 그 지역을 鎮守하였다. 백제는 고구려와 倭에 사신을 보내 파병을 요청하였다.	권8 三國紀
31	663년	당나라 孫仁師가 백제의 周留城을 공격하여 빼앗았다.	
32	663년	당나라 劉仁軌가 任存城을 공격하였다.	
33	664년	당나라와 신라에서 사람을 보내 백제의 遺民을 다스렸다.	
34	665년	신라왕이 劉仁願, 扶餘隆과 盟約을 하였다.	

『이칭일본전』 권하지일에서 먼저 인용한 것은 『동국통감』의 권1, 권2, 권3, 권7, 권8에 수록한 일본과 관련된 기사 34조이다. 모두 『동국통감』 『삼국기(三國紀)』에 실린 기사이다. 해당 기사들은 주로 신라, 백제, 고구려의 대일 외교사와 관련된 기록들인데 왜구의 침범, 유질(留質), 통혼, 조공을 비롯한 정보를 담았다. 그런데 삼국 간의 대외 활동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일본을 언급하거나 일본과 관련성이 있을만한 기록들도 포함시켰다. [26]번부터 [34]번까지가 그런 것이다. 이러한 기록들은 일본과의 관련성이 뚜렷하

지 않고 편찬자의 해당 안설까지 확인해야 비로소 수록 이유를 알 수 있다.

<표3-2> 『異稱日本傳』 卷下之一에 인용된 『東國通鑑』 『新羅紀』의 기사와 출처

순번	연도	기사 주요 내용	『東國通鑑』 출처
35	671년	당나라 薛仁貴가 신라왕에게 편지를 보냈다.	권9
36	670년	倭가 국호를 ‘日本’으로 바꾸었다.	新羅紀·文武王
37	698년	日本國에서 사신을 보내어 來聘하였다.	권10 新羅紀·孝昭王/聖德王/孝成王/惠恭王/菴莊王
38	731년	왕이 장수를 명하여 日本國의 침략을 격파시켰다.	
39	742년	日本國사신이 왔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40	779년	金巖을 日本國으로 보내 聘問하였다.	
41	802년	金鈞貞에게 假稱 왕자라 하여 倭國에 불모로 보내려고 하였으나 그가 사양하였다.	
42	806년	日本에서 사신을 보내와 聘問하였다.	

이어서 『동국통감』 『신라기(新羅紀)』 부분의 일본 관련 기사 8조를 채록 하였는데 『동국통감』 권9와 권10에서 뽑은 것이다. 신라와 일본의 교빙에 관한 내용들이 가장 많지만 그저 일본을 언급한 대목이 들어 있는 [35]번과 일본과의 전사(戰事)를 기록한 [38]번도 있었다. 『신라기』를 이어 『고려기(高麗紀)』에서 채록한 기사들을 수록하였다. 『이칭일본전』에 수록한 『동국통감』의 기사가 총 120조인데 그 중 78조가 고려왕조와 관련된 내용이다. 곧 권하지일의 [43]번 기사부터이다.

<표3-3> 『異稱日本傳』 卷下之一에 인용된 『東國通鑑』 『高麗紀』의 기사와 출처

순번	연도	기사 주요 내용	『東國通鑑』 출처
43	1029년	표류인들이 日本 那沙府에 이르렀다.	권16 高麗紀·顯宗元文王
44	1049년	日本 對馬島에서 사신을 보내어 표류인들을 귀환시켰다.	권17 高麗紀·文宗仁孝王
45	1086년	釋煦가 송나라에서 돌아왔다. 遼·宋·日本에서 책을 사들여 간행하였다.	권18 高麗紀·宣宗思孝王
46	1093년	송나라 사람과 왜인으로 구성된 海賊 무리가 잡혔다.	권25 高麗紀·教宗莊孝王
47	1169년	왕이 신하에게 송나라와 일본의 玩物을 내려주었다.	

48	1227년	倭賊이 변방을 침구하였으나 모두 막았다. 日本國이 사과하고 교역을 청하였다. 朴寅을 講和하러 일본으로 보냈다.	권31 高麗紀·高宗安孝王
49	1228년	朴寅이 일본에서 돌아왔다.	
50	1244년	盧孝貞과 李珪이 파선된 일본 商船의 물건을 私取하였으므로 탄핵을 받았다.	권32 高麗紀·高宗安孝王
51	1263년	郭王府를 일본국으로 보내어 도적을 금지하도록 청하였다.	
52	1266년	몽고에서 黑的·殷弘 등을 보내와 조서를 내려 그들을 일본으로 가는 것을 인도하라고 하였다.	권34 高麗紀·元宗順孝王
53	1267년	宋君婁와 黑的은 일본으로 갔다가 돌아와 다시 함께 몽고로 갔다. 결국 潘阜를 사신으로 일본에 보냈다.	
54	1268년	王濬이 몽고에서 돌아왔고 몽고에서 사신을 보내 일본으로 가기 위한 軍額과 軍艦을 점검하였다.	
55	1269년	黑的과 申思佺 등이 붙잡아 온 倭人 2명을 데리고 몽고에 가서 황제를 알현하였다.	권35 高麗紀·元宗順孝王
56	1270년	세자 王諱이 몽고에서 돌아왔고 황제가 조서를 내렸다.	
57	1271년	몽고에서 趙良弼 등 사신을 보내 조서를 내렸다.	
58	1272년	趙良弼이 일본에서 돌아왔다. 세자가 원나라에서 돌아왔다.	권36 高麗紀·元宗順孝王
59	1273년	원나라에서 趙良弼을 다시 일본으로 보냈지만 國都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왔다.	
60	1274년	원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와 일본 정벌을 돕도록 명령하였다.	

[43]번과 [44]번 기사는 『동국통감』의 권16과 권17에서 채록한 것이며 모두 표류인과 관련된 기록이다. [45]번부터 [47]번 그리고 [50]번 기사에서는 무역 그리고 해적과 관련된 정보들이 확인된다. [48]번과 [49]번은 박인(朴寅)이 일본에 다녀온 기록을 인용한 것이다. [48]번 기사에서는 또한 왜적의 침범과 관련된 기록이 보이는데 [51]번 기사도 왜구(倭寇)에 관한 것이다. [52]번부터는 고려왕조가 송나라, 금나라, 몽고-원나라 그리고 일본과 교섭하는 상황을 기록한 기사들인데 고려가 당시 복잡한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주선하는 모습을 짐작케 한다. 특히 원나라의 일본 원정과 관련된 기사들이 [52]번 기사를 이어 『이칭일본전』의 권하지이(卷下之二)에도 수록되었다.

『이칭일본전』 권하지이도 전부 『동국통감』에서 발췌한 기사들이다. 권하지일의 기사 건수와 마찬가지로 역시 60조이다. 그 중 18조는 원나라의 일본 원정과 관련되고 나머지는 주로 고려 후기 왜구의 침범과 고려의 저항을 기록한 기사들이다. 앞서 제시한 <표3>을 통해 『이칭일본전』에 수록된 『동국통감』 속의 기록들이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으므로, 또한 지면상 제한으로 권하지이에 수록된 왜구를 둘러싼 기사들의 정보에 대해 일일이 나열하지 않기로 한다.

『이칭일본전』 권하지삼(卷下之三)에서는 9종 조선 문헌을 전거 자료로 삼았다. 그 가운데 『삼국사기』에 대한 인용 분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기록들을 살펴보면 주로 두 가지 내용에 집중되어 있다. 하나는 왜구의 침범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과의 교빙(交聘)에 관한 것이다. 그밖에 탈해 난생설화 기록과 일본 사신이 황금과 구슬을 진상했다는 기록도 꽤 길게 인용하였다.

『이칭일본전』 권하지삼에서 또 많이 인용한 문헌으로는 『모재집』과 『동문선』이 있다. 김안국(金安國, 1478~1543)의 시문집 『모재집』에서 채록한 기사는 37조이다. 반은 김안국이 자신과 교유했던 일본승려에게 쓴 한시이고³³⁾ 반은 일본 측에 보낸 서신과 관련 공문이다³⁴⁾. 교유시(交遊詩)에는 일본에 대한 김안국의 우호적 인식이 나타나며³⁵⁾ 서신과 공문에서는 표류인, 왜구 침입, 백은 무역 등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이칭일본전』에는 『동문선』에 대한 채록 기사가 20조 확인되는데 한시와 산문으로 나뉜다. 한시 작품으로는 정몽주(鄭夢周)의 <홍무 정사년에 일본으로 사신가서 지음(洪武丁巳奉使日本作)>, <우연히 쓰다(偶題)>, <여관

33) <書日本人犬吠圖>, <送別日本僧弼中等>(5수), <荅日東使宗國貞吉簡>(3수), <題扇寄日東客>, <次日東使易窓上人韻>(4수), <次寄日本僧月江韻>(2수), <次日本弼中上人韻>(4수), <與弼中上人飲且彈琴>, <次弼中上人聽琴韻>(2수), <與弼中話及睡夢中, 指庭中槐樹曰: 睡鄉風味盡在此中, 我輩聚散寧非一夢乎? 因感而贈之>, <與日本釋弼中月江玉成祖芳賞仲秋月夜分乃散明朝各贈壹首>, <走筆謝却弼中惠樂>, <和日本僧康樂等韻以別>, <贈日本國使安心東堂>, <賜宴席次安心東堂韻>, <次安心東堂韻>, <觀射次安心東堂韻>, <蚕嶺遊觀次日本使僧安心韻>, <次安心韻>.

34) <荅對馬島主書>(총6편), <對馬島通諭書契>, <與對馬島主書>, <復日本國內殿書>, <荅日本國小二殿政尙書>, <通諭對馬島主書>, <荅日本國弼中師書>, <荅日本國使弼中師書>, <復日本國東陽師書>, <復日本國王書>, <承王旨書諭日本國使臣質銀事>, <慕齋先生行狀(附錄)>.

35) 손유경, 『慕齋 金安國의 對日認識』, 『漢文古典研究』 19, 한국한문고전학회, 2009, 31~53면.

에서(旅寓)〉, 석만보(釋卍甫)의 <일본 승려 문계를 전송하며(送日本僧文溪)〉, 권근(權近)의 <정대사성이 일본에 사신 가는 것을 전송하며(送鄭大司成奉使日本)〉, 최항(崔恒)의 <일본승에게 주다(贈日本僧)〉, 이숭인(李崇仁)의 칠언율시 한 수,³⁶⁾ 박서생(朴瑞生)의 <봉사 일본 유감(奉使日本有感)〉 등이 있다. 그리고 이장용(李藏用)의 <몽고 사신 흑적에게 준 편지(遺蒙古使黑的書)〉, 신숙주(申叔舟)의 <종정국에게 답한 편지(荅宗貞國書)〉(2편), 권근(權近)의 <영덕 객사기(盈德客舍記)〉, <청하현 의창해사기(淸河縣義倉廢舍記)〉, <일본에 사신 가는 밀양 박돈지 선생을 전송하는 글(送密陽朴先生敦之奉使日本序)〉, <일본으로 돌아가는 천우 상인을 전송한 글(送日本天祐上人還歸序)〉, 권채(權採)의 <『포은집』 서문(圃隱集序)〉³⁷⁾과 <일본 국사 영상인 송천유항에게 쓴 시서(日本國使齡上人松泉幽巷詩序)〉, 정이오(鄭以吾)의 <성주고씨가전(星主高氏家傳)〉, 이색(李穡)의 <『황벽어록』 발문(跋黃蕪語錄)〉, 이침(李詹)의 <박관사의 『일본행록』에 붙인 발문(朴判事日本行錄跋)〉 등의 글도 인용하였다.

『이칭일본전』은 『해동제국기』 서문의 일부, 범례, ‘일본국(日本國)’ 조(條) 그리고 『해동제국총도(海東諸國總圖)』, 『일본본국지도(日本本國之圖)』, 『서해도구주지도(西海道九州之圖)』, 『일기도지도(一岐島之圖)』, 『대마도지도(對馬島之圖)』 등 지도를 수록하였고 또 『일본국기(日本國紀)』속의 ‘천황대서(天皇代序)’, ‘국왕대서(國王代序)’, ‘도로이수(道路里數)’, ‘팔도육십육주(八道六十六州)’ 등 글을 차례대로 대폭 수록하였다. 그러나 『해동제국기』 『일본국기』 속의 ‘국속(國俗)’은 인용하지 않았다.

『이칭일본전』은 『징비록』에서 기사 32조를 인용하였다. 임진왜란의 주요 사건과 상황을 서술하는 『징비록』 권1과 권2의 내용을 위주로 채록하였다. 그 뒤에 『녹후잡기(錄後雜記)』도 함께 수록하였다. 류성룡(柳成龍)의 전쟁회고록 『징비록』은 야사로 분류되지만 『이칭일본전』에서 세 번째로 많이 인용한 문헌이다. 이는 겐린이 이 책이 지니는 사료적 가치를 충분히

36) 해당 작품의 詩題는 사실 詩序로 되어 있다. <尹憲叔來言錦之禮賢驛，有龍家嫗者，龍家卽其子也。里閭高嫗年，不敢名而以子號之，年過百歲。強康無恙，去年以病死。渠云，生七歲，見東征之師，蓋宋之季元之至元乙亥，乃其生年。而東師則辛巳日本之役也。嫗年一百又四矣。子太史氏宜倣左氏記絳老人之例，書之於策。余聞其語，姑題四韻一篇，以爲後日張本云。己未年作>이다.

37) 해당 서문에 대해 ‘西朝京師東使日本’이라는 한 구절만 인용하였다.

인정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칭일본전』에서 10회 이하로 인용한 조선 문헌으로는 『진산세고』, 『삼강행실도』, 『속삼강행실도』, 『경국대전』, 『대전속록』, 『중간신응경』 등이 있다. 『진산세고』에서 한시 <일본에 봉사하는 고 침추를 보내며(送高僉樞奉使日本)>와 <신범옹이 일본으로 돌아간 것을 배웅하며(送申泛翁歸日本)> 그리고 <일본 철쭉화(日本躑躅花)>라는 글을 뽑았다. 『삼강행실도』와 『속삼강행실도』에서 각각 기사 5조와 2조를 채록하였다. 미사흔(未斯欣)과 박제상(朴堤上)이 왜에 볼모로 잡혀간 일, 김원계(金原桂)가 왜구의 침입으로 함락한 선주성(宣州城)을 구원하고 적을 추격하다가 전사한 일, 그리고 열부 최씨, 배씨, 임씨에 관한 기록들이 모두 『삼강행실도』에서 채록한 것이다. 『속삼강행실도』에서 김득인(金得仁)의 효성이 왜노(倭奴)까지 감동시켰다는 기록, 조을생(趙乙生)의 아내 약가(藥哥)와 한약(韓約)의 아내 최씨가 절개를 지켰다는 기록을 인용하였다. 『경국대전』과 『대전속록』에서 각각 기사 4조와 5조를 인용하였다. 사자(寫字), 역어(譯語), 대사객(待使客), 장권(獎勸), 부신(符信), 급보(給保), 금제(禁制) 등 조항 속의 일본과 관련된 기록들이다. 『중간신응경』에서 채록한 것은 한계희(韓繼禧)가 쓴 서문과 부록으로 첨부한 ‘팔혈법(八穴法)’이다.

나머지 『삼한시귀감』, 『동인지화』, 『태평통재』에서 인용한 기사는 각각 하나뿐이다. 『삼한시귀감』에서 뽑은 기록은 곽여(郭預)의 한시 <감도해(感渡海)>이고 『동인지화』에서 채록한 것은 청심루(淸心樓)에 대해 조선인과 일본인이 남긴 시구(詩句)들과 서거정(徐居正)의 평어이다. 그리고 『태평통재』에서 뽑은 것은 원래 『양화소록(養花小錄)』에 수록한 조선인이 일본 서방사(西方寺)를 방문했던 일화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 『이칭일본전』 하권에 수록된 기사는 비록 다양한 조선 서적에 기재되어 있지만 사실 내용 상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그것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왜(倭)는 삼국시대부터 내빙(來聘), 청혼, 헌물(獻物) 등 방식을 통해 한반도와 교방관계를 맺었다. 한반도에서는 왜의 사신을 후대하거나 거절하기도 하였다. 또 인질을 왜에 보내기도 하였다.

- (2) 한반도에는 왜구의 크고 작은 침입이 상당히 잦았다.
- (3) 비범한 계략으로 왜의 침입을 막았고 또 그들을 격퇴하였다.
- (4) 왜구를 막지 못할 때 그들의 강탈로 나라와 백성이 손실을 입었다.
- (5) 역사상 한반도와 왜의 문화적 교류의 성과는 주로 사신들이 주고받은 시문을 들 수 있다.
- (6) 그밖에 표류인 귀환, 백은 무역, 원나라의 일본 원정, 임진왜란 등 구체적인 사건들이 한반도와 일본의 교섭사(交涉史)에서 중요하게 다룬 문제로 떠오른다.

(1)은 일본과 평화적인 외교관계를 맺은 역사를 서술한 기사들이고 (2)는 일본의 왜구로 기록된 무리와 일어난 충돌을 서술한 기사들이다. 이 두 가지 기사는 매우 대조적이다. 그러나 조선 정사(正史)에 기록된 이 두 가지 기사의 분량이 『이칭일본전』에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2)에 속한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다. 예컨대 『동국통감』에서 채록한 왜구의 침입과 관련된 기사가 52조이며 전체 117조 기사에서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따라서 『이칭일본전』 해당 부분에 드러난 일본의 이미지는 우호적인 이웃나라보다 한반도 연해지역을 끊임없이 침범하는 왜구를 산출하는 나라로 각인된다.

그리고 (3)과 (4)는 모두 왜구의 침략과 관련된 기사다. 여기에서 (3)과 (4)를 하나로 묶지 않고 둘로 나눈 이유는 그 기록의 상세 정도와 서술 주체의 태도에 차이가 보이기 때문이다. (3)에 속한 기사들은 자세하게 왜구를 격퇴시킨 과정을 기록하였고 또 전투에서 이긴 조선 측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4)에 속한 기사들은 내용이 소략하고 주로 손실과 피해의 규모를 기록했기 때문에 자연스레 왜구에 대한 증오와 질책이 드러난다. 따라서 『이칭일본전』의 해당 부분에서 일본은 강탈적이고 비문명적인 위협스러운 왜구로 그려지고 있다.

(5)에 속한 기사를 통해 역사상 한반도와 일본의 문화적 교류의 주체가 주로 양측의 사신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칭일본전』만 본다면, 조선 문헌에 수록된 관련 시문의 수량이 많지 않으므로 양측의 이러한 문화 교류가 의미를 부여할 만한 정도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6)에 속한 기사는 모두 조선 문헌에서 길게 다룬 역사 사건들이다. 눈에

떨 정도로 상당한 분량을 차지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건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일본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가 형상화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표류인 귀환 건에서 보인 일본의 협조적이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변덕스러운 모습, 조선에 은 무역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통상 자세, 원나라의 일본 원정 건에서 드러난 일본의 지리적 우위, 임란과 관련된 기록에 보이는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의 강대한 군사력과 전쟁 과정에서 드러난 잔인하고 교활한 일본의 이미지 등이다. 이는 (1)~(5)에서 표출된 일본의 이미지를 다 각화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2. 겐린의 안설(按說) 속의 ‘일본’

15종 조선 문헌에 대한 채록 분량이 문헌에 따라 큰 차이가 확인되는 만큼 찬자 겐린의 안설도 전거 문헌에 따라 상당한 수적인 차이가 확인된다. 겐린은 『이칭일본전』의 서문에서 편찬목적에 개진하면서 안설의 역할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하였다.

그러나 내용과 형식, 성행과 쇠퇴에는 다름이 없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의 책에는 시대에 따라 우리나라의 일을 기록하는 데 당연히 시비선악이 많을 것이다. 예전에 도네리 친왕(舍人親王)께서 『일본서기(日本書紀)』를 편찬할 때 종종 다른 나라의 책을 가져와 참고로 삼았다. 나 역시 한가한 시간에 자주 책을 읽는다. 그간 책을 읽을 때 우리나라의 유사(遺事)를 보게 되면 바로 모아 적어놓기도 했다. 그런데 이 책들이 기술한 것에 있어서 시비가 뒤섞이고 허실이 어지러우니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이 쓴 것이라 어찌 다 믿을 수 있겠는가? 마땅히 우리나라의 기록으로 입증하고, (우리나라의 기록과 다른 것에 대해) 논변을 통해 취사(取捨)해야 한다. 그리하여 (그런 기사를 보면) 혼자서만 헤아리지 않고 ‘今案’을 달았다. 이것으로 같고 다름의 옳음을 설명하고, 또 의심 가는 부분에 대해 설명할 것이 있으면 반드시 함께 주문(注文)을 달아놓는다.³⁸⁾

38) 松下見林, 『異稱日本傳』 영인본, 東京: 國書刊行會, 1926, 3~5면. “然質文衰盛, 不能無殊. 故異邦之書, 隨時志我方, 宜美惡居多. 舍人親王撰『日本書紀』, 往往引以備參考. 余亦竊此以三餘之暇, 常閱載籍, 其間得我遺事, 則集錄之. 而諸書之所述是非混淆, 虛實紛糅, 不知而作者有之, 豈可盡信乎? 當主我國記微之, 而論辯取舍則可也. 於是乎不自揆加‘今按’, 釋同異之分, 正嫌疑, 有餘義, 則必兼注之.”

젠린은 외국 서적 속의 일본에 대한 기록이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일본 쪽 기록과 다를 경우 일본의 기록을 준수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을 밝혔다. 이에 그는 자신이 열람한 외국 서적 속의 일본 관련 기록을 적어놓았을 뿐만 아니라 ‘금안(今按)’ 두 글자로 시작하는 안설을 통해 일본 측 기사와 다르게 기술한 외국 기사에 대해 논변을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논변을 통해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가려내려고 하였고 또한 의심스러운 기록에 대해서도 덧붙여 설명하였다고 한다. 요컨대 젠린은 주해·설명·고증·평가를 나타내는 안설이라는 학문적 저술 형식을 통해, 외국 문헌 속의 자국 관련 기록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밝히고자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그가 조선 문헌 속의 일본 관련 기사를 어떻게 보았는지 또한 일본의 역사적 이미지를 어떻게 수립하였는지 『이칭일본전』 하권에 삽입한 안설을 통해 규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칭일본전』에서 ‘금안’으로 시작하는 안설은 전거 문헌에서 뽑은 인용문의 뒤를 이어 한 칸 내려 썼다. 그리고 이 책 하권에서 총 252개 안설이 확인된다. 하권에 수록한 기사가 530조 정도가 되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 젠린은 전체 기사의 절반을 대상으로 안설을 붙였던 것이다.

각 전거 문헌에 대한 안설의 건수는 앞의 <표2>에서 이미 제시한 바이다. 표에 적힌 숫자를 통해 젠린이 『동국통감』과 『삼국사기』에 대해 특히 안설을 많이 달아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자료에서 채록한 기사와 안설이 수적으로 거의 상등한데, 젠린이 인용한 기사에 대해 거의 조목마다 안설을 단만큼 조선의 관찬 역사서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처럼 기사와 안설의 비율을 따지면 『삼한시귀감』, 『동인시화』, 『속삼강행실도』, 『태평통재』 등 문헌에 대한 안설도 적은 편은 아니다. 해당 기록들도 젠린의 논변적인 관심을 끌었다 할 수 있다. 이어서 『이칭일본전』 하권에 수록한 전거 문헌에 따라 안설의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역사서에 대한 안설

『이칭일본전』에는 『동국통감』에서 120조 기사를 채록하였고 그것에 대해 117개 안설을 붙였으니 거의 모든 기사에 대해 찬자의 견해를 보여준 셈이다. 한 마디로 적은 안설도 있지만 아주 길게 쓰여 2면 이상의 지면을

차지한 것도 있다. 한 마디로 적은 안설은 모두 해당 기사의 연대표기를 일본 기년에 비정하여 밝힌 것이다. 예를 들어 『동국통감』 권2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를 인용하였다.

[계유년, 한나라 영평 16년, 신라 탈해왕 17년, 고구려 태조 21년, 백제 다루왕 46년] 여름 5월에 왜(倭)가 신라의 목출도(木出島)를 침범하니, 왕이 각간(角干) 우조(羽鳥)를 보내어 막았으나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

지금 살펴보건대, 영평 16년은 곧 일본 경행천황 3년이다.³⁹⁾

『동국통감』에 수록된 위의 기사는 ‘한나라-신라-고구려-백제’ 순으로 해당 기년을 표기하고 사건을 기술하였다. 겐린이 그대로 인용한 다음에 연대표기를 일본 천황 기년에 비정하여 안설에 적었다. 앞의 기사가 일본의 어느 천황에 비정하는지 밝히는 이런 짧은 안설이 『동국통감』에 대한 안설 117개 중에 무려 80개나 있다.⁴⁰⁾ 그리고 나머지 안설에도 대부분 일본 기년을 밝히는 정보가 기입되어 있다. 일본 기년을 밝히는 내용이 없는 안설은 3개뿐이다.

겐린이 왜 수고롭게 연대를 비정하고 첨가하였을까. 그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조선의 연대표기를 일본식 기년에 비정하여 표기한다는 것은 해당 기록을 일본과 관련된 역사기록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자세로 이해된다. 특히 본국 사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외국 기사를 자국 역사기록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자국의 역사서술에 정보를 보태주는 셈이 되고 자국 역사서술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 해당 기록들이 곧 ‘보사(補史)’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사를 위한 목적이라면 찬자의 자국중심적 사고와 연결하여 설명할 수도 있다. 겐린은 조선 문헌에 기술된 일본 관계사를 일본의 입장에서 다시 바라보겠다는 수단으로 먼저 ‘기년 비정’을 택하였다. 이것으로 조

39) 위의 책, 1100면. “[癸酉, 漢永平十六年, 新羅脫解王十七年, 高句麗太祖王二十一年, 百濟婁多王四十六年]夏五月, 倭侵新羅木出島, 王遣角干羽鳥禦之, 不克死之. 今按永平十六年, 當日本景行天皇三年.”

40) 한 구절로 일본 기년을 밝히는 안설이 『三國史記』 채록 부분에서 37개, 『慕齋集』 채록 부분에서 1개, 『三綱行實圖』 채록 부분에서 3개, 『海東諸國記』 채록 부분에서 1개, 『懲愆錄』 채록 부분에서 6개가 확인된다. 기타 안설에서도 일본식 기년을 밝히는 구절이 자주 보인다.

선의 일본 관계사 기록들을 일본 역사 서술체계에 인입하는 시도를 한 것이다. 관련 기사들을 일본사 체계에서 재검토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실 겐린은 이러한 작업을 통해 “기년론과 관련된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겼다.”⁴¹⁾라는 평가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작업은 일본식 천황 기년 체계를 구축·확립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대를 비정하는 안설을 통해 외국의 역사서술 체계에서 일본의 역사적 이미지를 각인시켰다는 효과를 얻었다고 본다.

한편 사료비판을 행하고 있는 안설도 주목되는데 특히 사료의 진위를 따지고 허실을 가려내려는 안설에서는 인용문의 서술과 대비되는 내용들이 확인된다.

겐린은 『동국통감』 「삼국기」에서 신라 흘해왕 3년 3월에 왜가 사신을 보내어 신라에 청혼하여, 아찬(阿漚) 급리(急利)의 딸을 보냈다는 기사를 인용하였고 그 뒤에 불인 서거정 등 편찬자의 안설도 함께 인용하였다.⁴²⁾ 인용문을 이어 겐린의 다음과 같은 안설이 확인된다.

지금 살펴보면, 영가 6년은 곧 일본 오진 천황(應神天皇) 43년이다. 우선 41년 때 천황이 돌아가셨고 그의 나이는 110세였다. 그 후 3년간 오오사사키 노미 꼬도(大鷦鷯)가 우지노와키 이라쓰코(菟道稚郎子)를 존대하여 형제끼리 황위를 양보하면서 즉위하지 않았다. 그게 바로 이 때인데 그렇다면 누가 청혼을 했다는 것인가? 『동국통감』에서 말하는 것이 심하게 거짓이다.⁴³⁾

겐린은 『동국통감』의 연대표기를 일본 기년에 비정한 다음에 그 당시 일

41) 정순일, 『『三韓紀略』의 고대사 서술과 한일관계 인식』, 『사학연구』 129, 한국사학회, 2018, 78면.

42) 松下見林, 『異稱日本傳』 영인본, 東京: 國書刊行會, 1926, 1114~1115면. “[晉永嘉六年, 新羅訖解王三年, 高句麗美川王十三年, 百濟比流王九年] 三月, 倭遣使請婚於新羅, 以阿漚急利女送之. 臣等按『春秋』之法‘父母之讎, 不共戴天’, 今王于老之子, 于老嘗見殺於倭奴, 則王之於倭奴, 有不共之讎, 包羞忍恥, 匿怨忘親, 輕以許嫁, 何耶? 魯莊之於齊襄, 有父之讎, 方居苦塊, 無時焉可通也. 而當其身棄怨釋仇, 或主婚, 或盟, 或會, 或符, 大失子道. 故『春秋』備書于策, 詳加譏貶, 以著忘親之罪. 今王雖欲辭魯莊之罪, 得乎? 嗚呼! 夫差夷狄之君也, 猶不忘越王之殺其父, 出入之省, 終必報復, 而後乃已. 今王非特『春秋』罪人, 抑亦夫差之罪人與.”

43) 위의 책, 1115면. “今按永嘉六年, 當日本應神天皇四十三年. 先是四十一年, 天皇崩, 年百十歲. 其後三年之間, 大鷦鷯尊菟道稚郎子, 兄弟讓天下, 不即位. 當時, 誰請婚乎? 『東國通鑑』說甚非也.”

본의 상황을 설명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신라 흘해왕 3년은 일본 응신 천황이 세상을 떠난 지 2년 후다. 당시 즉위한 황자가 없으므로 청혼한 일도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겐린은 『동국통감』의 기록이 거짓이라고 비판하였다.

위와 비슷한 사례가 바로 그 뒤에서도 확인된다. 흘해왕 35년의 기사를 인용한 것인데 왜(倭)가 청혼을 위해 신라에 사신을 보냈으나 신라에서는 이에 대해 회보(回報)하지 않았다는 기록이다.⁴⁴⁾ 겐린은 해당 안설에서 일본의 여러 사서에 관련 기록이 없다고 반박하였다.⁴⁵⁾ 조선 측의 청혼 기록을 부정하는 것을 통해 일본 황실의 혈연이 한반도와 무관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두 나라의 친연성을 부정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

『동국통감』의 기록을 비판하는 몇몇 안설에서 겐린은 삼한을 일본에 부속된 것으로 보고 있었다. 『삼국기』에 실린 백제 전지(腆支)가 왜국에 볼모로 있다가 돌아와서 왕이 된 기사를 인용한 후 그 뒤의 안설에서는 『일본서기』를 인용하여 “천황이 전지를 불러 말하기를 ‘그대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왕위를 계승하라.’ 그리고 이어 동한(東韓)의 땅을 하사하여 보냈다.”라고 하였다.⁴⁶⁾ 일본천황이 백제왕에게 땅을 하사해준다는 것은 백제를 일본의 속국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안설에 기입한 것은 겐린이 일본 역사서 기록을 통해 자신의 역사관을 구현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탐라국주(耽羅國主)인 좌평(佐平) 도동음률(徒冬音律)이 신라에 조빙하였다는 기사를 인용하였다. 해당 인용문에는 탐라가 나중에 백제에 귀속되었다가 다시 신라에 항복하여 속국이 되었다는 내용도 적혀 있다.⁴⁷⁾

44) 위의 책, 1115년. “[晉建元二年, 新羅訖解王三十五年, 高句麗故國原王十四年, 百濟比流王, 四十一年, 契王元年] 春二月, 倭遣使新羅請婚, 不報.”

45) 위의 책, 1115~1116년. “今按建元二年, 當日本仁德天皇三十二年, 我國史諸書, 無請婚事.”

46) 위의 책, 1119~1120년. “秋九月, 百濟王阿莘薨. 太子腆支質倭國不還. 太子仲弟訓攝國政, 以待太子之還. 季弟磔禮殺訓解, 自立爲王. 腆支聞王訃, 痛哭請歸. 倭主以兵百人衛送. 腆支既至國界, 漢城人解忠迎, 謂曰:‘大王棄世, 磔禮殺兄自立. 願太子早爲之計.’ 腆支以倭兵自衛, 依海島備之. 國人殺磔禮, 迎立爲王. 今按義熙元年, 當履中天皇六年. 『日本紀』‘阿莘’作‘阿華’, ‘腆支’作‘直支’. 云應神天皇十六年, 是歲百濟阿華王薨. 天皇召直支王, 謂之曰:‘汝返於國, 以嗣位, 仍賜東韓之地.’ 而遣之.”

47) 위의 책, 1138~1139년. “耽羅國主佐平徒冬音律朝新羅. 初高乙那十五代孫高厚·高淸兄弟三人造船渡海. 至于耽津, 于時客星見于南方. 太史奏曰:‘異國人來朝之象.’ 未幾厚等果來. 王嘉之, 稱長子曰‘星主’, 以其動星象也. 二子曰‘王子’, 蓋王愛淸, 令出胯下如己子, 故名之. 季子曰‘都內’. 邑號曰‘耽羅’, 以來時初泊耽津故也. 各賜寶蓋衣帶而遣之. 不知何王時也. 後臣屬百濟,

이어 “탐라에서 왕자 아파기(阿波伎) 등을 일본에 보내 공헌을 한 적이 있고 그 후 여러 번 내조(來朝)하였다.”⁴⁸⁾라고 안설에서 서술하고 있다. 인용 문에는 일본과 관련된 언급이 없지만 그대로 인용하였다. 이는 안설을 통해 탐라국과 일본의 조공관계를 강조하기 위한 편찬 전략으로 판단된다.

젠린은 『동국통감』 권8에서 신라 문무왕 3년 당나라 군사와 신라 군사의 협력으로 백제 주류성(周留城)을 공격하여 빼앗은 기사를 부분적으로 인용한 후 분량이 아주 긴 안설 2개를 적었다. 그 중 ‘우안(愚按)’으로 시작한 두 번째 안설이 주목된다. 그는 첫 문장에서 “삼한은 대대적으로 우리 일본국에 부용해왔다.”⁴⁹⁾라고 노골적으로 주장하였다. 해당 안설에서 젠린은 일본 제명천황과 천지천황이 여러 차례 군사를 이끌고 백제를 보손시키려고 하였으나 실패했다고까지 서술하였는데 삼한이 일본의 속국이라는 역사인식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동국통감』에 대한 젠린의 안설에서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바로 왜구 관련 기록에 대한 견해이다. 앞서 『이칭일본전』 권하지이에서 왜구와 관련된 기사가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젠린은 왜구의 침입을 기록한 기사를 대폭 수록한 다음에 어떠한 반응을 하였을까? 한 안설에서 그는 “당시 고려에는 왜구를 가탁하여 간사한 행위를 한 이가 있었으니, 양수척(楊水尺), 이금(伊金), 임견미(林堅味) 같은 이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이것으로 보아 그들이 왜구라고 부른 자들이 어찌 모두 왜인이겠는가? 과연 알 수 없다.”⁵⁰⁾라고 하며 왜구는 모두 왜인이 아닐 수 있으니 그 정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왜구가 곧 왜인이다’는 전제를 뒤집어 놓은 셈이다.

『삼국사기』에 대한 『이칭일본전』의 안설은 총 59개가 확인된다. 이 중 37개는 앞서 언급했던 일본 연대에 비정하는 안설이고 13개가 『동국통감』

故以佐平爲官號。至是來降爲屬國。”

48) 위의 책, 1139년. “今按『日本紀』, 先是齊明天皇七年五月丁巳, 耽羅始遣王子阿波伎等貢獻, 其後數來朝。故表出耽羅事。”

49) 위의 책, 1114년. “愚按夫三韓世爲我國附庸。然新羅忘我恩, 動輒有虎心。百濟納款誠, 而及其喪亂告急, 豈可不恤危乎? 是以齊明天皇·天智天皇幸筑紫, 數興大軍, 欲存其國。然於存亡危急之間, 福信枉害, 三月國遂丘墟, 此豐璋之過也。天乎? 人乎? 悲夫!”

50) 위의 책, 1256~1257년. “今按洪武十八年, 當日本南朝元中二年·北朝至德二年, 當時高麗托倭寇爲奸如楊水尺, 伊金, 林堅味, 是也。以此觀之, 則他稱倭寇, 不悉爲倭人乎? 果未可知也。”

의 기록과 비교하는 안설이며 나머지 안설은 주로 기록의 진위를 따지는 안설들이다. 『동국통감』 속의 기록과 비교하는 안설은 일반적으로 두 역사서에서 같은 역사 사건에 대한 기록의 동이(同異)나 상략(詳略)을 밝히고 있는데 기록한 시간 차이를 지적하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삼국사기』 권2 신라본기(新羅本紀) 제2에서 조분이사금(助賁尼師今) 4년 5월에 왜군(倭軍)이 동쪽 변경을 노략질하였다는 기사를 인용한 다음에, 같은 해 7월에 이찬(伊漚) 우로(于老)가 바람과 불을 이용하여 왜적을 막았다는 기사도 함께 인용하여 기재하였다.⁵¹⁾ 그리고 인용문 뒤에 붙인 안설은 “지금 살펴보건대, 『동국통감』에서는 이를 5월의 일이라고 적었다.”⁵²⁾라고 하여 두 역사서 기록에서 확인되는 시간 차이를 지적하였다.

한편 인용문 내용을 부정하는 안설에서는 겐린이 지향하는 일본상을 포착할 수 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1에서 지마이사금(祇摩尼師今) 12년 봄 3월에 왜국과 화해하였다는 기사를 인용하였다.⁵³⁾ 그리고 그 뒤의 안설에서는 화해한 일이 일본 사서에 보이지 않는다고 조선의 기록을 부정하였다.⁵⁴⁾ 또 『삼국사기』 신라본기 제2에서 아달라이사금(阿達羅尼師今) 5년에 왜에서 사신을 보내와 예방하였다는 기사를 인용하였다.⁵⁵⁾ 그리고 그 뒤의 안설에서는 역시 이러한 기록이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반박하였다.⁵⁶⁾ 특히 그 뒤를 이어 왜국의 여왕이 사신을 보내 빙문하였다는 기록에⁵⁷⁾ 대해서도 격하게 부정하였다.⁵⁸⁾ 그밖에 벌휴이사금(伐休尼師今) 10년 6월에 왜인이 크게 굶주려 먹을 것을 구하러 온 사람이 천여 명이나 넘었다는 기사도 인용하였는데⁵⁹⁾ 그 뒤의 안설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⁶⁰⁾

51) 위의 책, 1227~1228면. “四年五月倭兵寇東邊。秋七月伊漚于老與倭人戰沙道，乘風縱火焚舟，賊赴水死盡。”

52) 위의 책, 1228면. “今按『通鑑』爲五月事。”

53) 위의 책, 1276면. “十二年春三月，與倭國講和。”

54) 위의 책, 1276면. “今按十二年，當垂仁天皇六十五年，講和事我國史不見。”

55) 위의 책, 1276면. “阿達羅尼師今立。五年，春三月，倭人來聘。”

56) 위의 책, 1276면. “今按五年，當日本成務天皇二十一年。謂倭人來聘，無稽之言也。”

57) 위의 책, 1277면. “二十年，夏五月，倭女王卑彌乎遣使來聘。”

58) 위의 책, 1277면. “今按二十年當成務天皇四十年，卑彌乎，異邦訛稱神功皇后也。見前。此年神功皇后降誕，安得有生而遣使來聘乎？甚謬。”

59) 위의 책, 1277면. “伐休(一作發暉)尼師今立。十年六月，倭人大饑，來求食者千餘人。”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겐린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신라 6대왕 때 일본은 신라와 화해한 일이 없었고, 신라 8대왕 때 일본에서 신라에 사신을 보내 빙문한 일들도 없었으며 신라 9대왕 때 일본에서 굽주림 때문에 구걸하러 온 사람들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기록의 진실성을 부정하는 것이 일종의 단정(斷定)이다. 이러한 단정은 비록 '부정'에서 나온 것이지만 실로 『일본서기』나 『고사기(古事記)』를 비롯한 고대 역사서에서 아직도 분명하게 기록되지 않은 제11대 천황부터 제14대 천황까지의 서술을 역사적 사실로 간주하여 부각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겐린은 일본 역사의 유구성과 한반도와의 관계에서 보이는 자국의 위엄을 이러한 안설을 통해 확보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겐린은 조선 역사서에 대한 안설에서 일본 쪽 사서를 인용하여 진구 황후(神功皇后) 관련 역사를 길게 기재하였다.⁶¹⁾ 그는 『일본서기』 속의 진구 황후 기록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한반도를 정벌한 이야기를 특필하였다. 그러한 서술과정에서 일본이 신이 수호하는 나라라는 신국사상(神國思想)도 함께 드러났다. 일본을 신국으로 강조하는 것은 편찬자의 자의식과 관련된 문제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일본 우월주의와도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요컨대 이 책에서 인용한 조선 문헌 속의 일본 이미지와는 현격하게 대조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안설을 통해 일본의 신국 이미지를 표출하려는 겐린의 의도가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하겠다.

(2) 시문(詩文) 선집 및 기타 문헌에 대한 안설

15종의 조선 문헌 가운데 『삼한시귀감』, 『모재집』, 『동문선』, 『진산세고』, 『동인시화』를 시문선집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겐린이 이런 시문선집이나 개인문집에서 채록한 내용은 주로 한시작품과 산문인데 역사서 인용문에 붙인 안설 건수와 분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략한 편이다. 총 32개의 안설이 확인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작시나 작문의 배경 혹은 그 내용을 설명하거나 시문에서 언급된 인물, 지명, 시기, 출처를 비롯한 정보를 고증한

60) 위의 책, 1277면. “今按十年當日本仲哀天皇二年. 此時日本新羅未通, 豈有倭人求食于新羅哉?”

61) 위의 책, 1095~1113면에 실린 안설 4개를 통해 『日本書紀』에 실린 神功皇后의 이야기를 대폭 수록하였다.

것이다. 이 가운데 일본의 역사적 이미지와 관련하여 찬자의 주관적인 견해에 입각한 안설들이 눈에 띈다.

『모재집』에서 <왕지를 이어 일본 사신에게 보내는 백은 무역 건에 대한 서신(承王旨諭日本國使臣貿銀事書)>이라는 글의 전문을 인용하였다.⁶²⁾ 이 글은 김안국이 중종(中宗)의 명에 따라 백은 무역과 관련해서 일본 사신에게 써 준 글이다. 중종 37년(1542) 일본 사신이 조선에서 무역을 금하고 있던 백은을 8만냥 가지고 내빙하였다. 백은 통상 여부 때문에 양국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윗글을 통해 조선에서는 일본의 호의를 생각해서 백은 2만냥의 통상을 허용하겠다고 제안하였다. 겐린은 이 글을 인용한 후 다음과 같은 안설을 덧붙였다.

살펴보건대 우리 일본국 중의 여러 나라에서 은을 많이 산출하는데 대마도가 바로 우리나라 처음으로 은이 나온 곳이다. 『연희식(延喜式)』 『신명장(神名帳)』에 “대마도의 하현군(下縣郡)에 은산신사(銀山神社)가 있는데 그곳을 처음으로 은이 나온 산이라 하여 제사를 지낸다.”라고 하였다. 『송사(宋史)』 상권을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살펴보건대 지금 아시카가 바쿠후(足利幕府)에서 은을 보내는 것은 부족함을 채우려고 한 것이니 거짓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삼한은 의식과 같은 외재(外財)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들의 법도 역시 그러하다.⁶³⁾

안설을 통해 일본이 은을 많이 산출하는 나라임을 명시하였다. 또한 조

62) 위의 책, 1347~1349면. “國王以國產白銀，遠送我國，意甚勤款，良深感荷。但此白銀，我國郡邑，亦無處不產。不開生民衣食之重，多屬侈奢之用。國若採取，利源一開，則民爭效之，趨利忽本，未流難防。故官既不採，又禁民採久矣。近聞商賈之徒，潛貿倭銀，國家慮競利之路漸開，崇侈之風日滋，立法禁之。使臣豈不聞知？在立法前，客使時有齋銀兩請貿者，略許貿之。蓋欲以綏慰遠人耳，非欲貿以爲用也。法立之後，彼亦知之，不復齋來，縱或齋來，斷不許貿矣。我兩邦交好之道，重在信禮之篤，豈以物貨爲厚薄哉！況邦國相與之際，非微人聘使之比，享儀往來，在所當慎。今者國王送銀之舉，儀情則備，固當敬答。但念以德相益，不徒以貨，則兩好愈光矣。今敬國王之送而許貿，則愚民間之，將謂國既樂貿他國之銀，意在崇重寶物，競趨利門，何能勝遏？因有朝議難於貿易，究厥朝議，亦非不在於敬答國王之禮。蓋欲寡躬務德而崇本，推以交隣，亦愛之以德，以求講好之道耳。其意亦未爲過。然反覆思之，國王厚意，義難終孤，況復使臣以使事不卒爲懼，懇請不已，義亦諒矣。不得不勉以從，特許公貿二萬兩，以表予敬重國王之意。餘不敢盡貿，以從朝議，情禮有缺，心甚未安，事有所不得已耳。使臣其悉予意。”

63) 위의 책, 1349면. “今按日本國中諸國多生銀，而對馬島則我國始所生銀之地也。『延喜式·神名帳』曰：‘對馬嶋下縣郡銀山神社，蓋以其始所出銀之山，故祭之。’宜參考上卷『宋史』。今按今足利送銀者，以濟補不足，未必爲非，而三韓重衣食外財，其法亦是。”

선에서 백은 무역을 금지하는 주요 원인을 옷과 음식 그리고 외재(外財)를 중요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사실 조선에서 백은 무역을 금지하는 이유는 그것이 의식주에 관계되는 생필품이 아니라 사치품이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 인용문 <왕지를 이어 일본 사신에게 보내는 백은 무역 건에 대한 서신>에서도 명확히 밝힌 바이다. 그러나 켄린은 이러한 조선의 주장을 무시한 채 은근히 조선을 폄하하는 이유를 댔다. 백은 무역 추진에 실패한 일본의 위상을 높히려는 의도가 없지 않다.

또 『동문선』에 실린 박서생의 7언 율시 <봉사 일본 유감>⁶⁴⁾을 인용한 후 다음과 같은 안설을 덧붙였다. “지금 살펴보건대 이 시는 일본에 기이한 산수와 화초가 있어 천하의 기관(奇觀)을 이루고 있다고 했다.”⁶⁵⁾ 박서생은 이 시의 전반부에서 일본측의 조선사신 접대에 대해 감사와 칭찬의 뜻을 전달하였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산수와 화초를 통해 일본의 자연경치를 극찬하였다. 사신으로서 의례적인 화답을 한 것이다. 그러나 켄린은 이 시의 후반부에 드러난 일본 경치에 대한 칭찬을 놓치지 않고 그 점을 안설을 통해 재차 강조하였다. 일본의 자연경관이 뛰어나다는 점을 각인시키려는 목적이다. 사실 고증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런 안설에 어느 정도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간다. 그러나 이와 같은 안설을 통해 켄린이 자국에 대한 자부심을 『이칭일본전』 편찬에서 어떻게 구현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역사서와 시문선집에서 인용한 기사에 대한 안설을 제외하면 나머지 조선 문헌에 대한 안설이 총 46개로 집계된다. 『삼강행실도』에 대한 안설 4개는 주로 일본 연대를 비정하는 내용이고 『속삼강행실도』에 대한 안설 2개는 각각 평어와 용어를 고증하는 것이다. 이 중 인용한 기사 내용으로 인해 쓰게 된 평어가 주목된다.

살펴보건대 그 당시 남왜(南倭)들의 마음이 돌과 나무처럼 완전히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다. 남의 효성에 감동하는 것을 보면 그들에게도 천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⁶⁶⁾

64) 위의 책, 1356면. “一飯聊申一祝辭, 君恩偏重遠游時. 盤飧日日多兼味, 尊酒時時滿大卮. 異卉幽花隨處好, 回山曲水到頭奇. 不因奉使來東域, 天下奇觀總不知.”

65) 위의 책, 1356면. “今按此詩言日本有奇異山水草花, 爲天下奇觀也.”

위의 안설은 『속삼강행실도』에서 김득인의 효성이 왜인까지 감동시켰다는 기록을 인용한 다음에 붙인 것이다. 도둑질을 했던 왜인들이 김득인의 효성에 감동하여 오히려 쌀을 가져다주었다는 내용이다. 『이칭일본전』에서 채록한 왜구 관련 기사 가운데 유일하게 긍정적인 모습이 보이는 기사라고 할 수 있겠다. 켄린 역시 이러한 기록을 놓치지 않고 안설을 통해 왜구에게도 인간적인 면이 있다고 감싸주었다. 앞서 켄린이 왜구가 모두 왜인이 아닐 수 있다고 하며 왜구의 정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고 했다. 켄린은 왜구와 일본인의 연관성을 약화시켰지만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다. 여기서는 왜구로 인해 훼손된 일본 이미지를 살리려는 목적으로 이러한 안설을 단 것으로 추측된다. 일본의 긍정적 이미지 구축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태평통제』 인용문에 붙인 안설은 일본 서방사의 연혁을 고증한 것이다. 『경국대전』 인용문에 대한 안설 2개는 일본의 역사서, 일본부(日本府), 야왜인(野倭人) 등 인용문에 나타난 정보들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전속록』 인용문에 대해서는 안설을 덧붙이지 않았다. 또한 『중간신응경서(重刊神應經序)』에 대한 안설에서는 일본 명의(名醫)와 의학에 대한 자부심을 보이고 있었다.

『해동제국기』 인용문에 대해서는 총 24개의 안설을 달았다. 주로 인명, 지명, 관직, 시간, 지리적 위치 등을 고증하는 내용인데 대개 『해동제국기』의 기록을 비판, 수정하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해동제국기』 속의 『일본국본도(日本國本圖)』를 전재(轉載)한 후 켄린이 “살펴보건대, 앞뒤의 일본지도에는 사실과 어긋나고 다른 것이 있다.”⁶⁷⁾라고 평가하였다. 이어서 후지산(富士山), 국왕전(國王殿), 무위전(武衛殿), 세천전(細川殿), 전산전(畠山殿) 등에 대해 설명한 다음에 “거기에 기록된 외군(外郡), 마을, 섬의 이름들이 대부분 소문에 의한 거짓이다.”라는 평어를 덧붙였다. 그리

66) 위의 책, 1392면. “今按當時南倭, 心非石木, 感人誠孝, 可見存天理也.”

67) 위의 책, 1416면. “今按前後日本圖差訛失真. 富士山高四十里, 四時有雪. 其言殆近秀吉征朝鮮時, 清正於元良哈捕獲一人, 名世琉兜字須, 元日本松前人也. 嘗乘漁舟所風飄在濟州. 二十年, 清正悅爲鄉導, 改名後滕次郎. 次郎云, 此地天霽可見富士山, 甚近. 下文天皇宮內裏國王殿, 指室町殿, 與足利氏所居武衛·細川·畠山, 所謂三管領. 京極·山名, 四職之列, 皆足利之臣也. 其外郡鄉島之名, 多傳聞之訛.”

고 『징비록』에 대한 안설 37개는 주로 일본식 기년을 비정하는 것이다.

『이칭일본전』 하권에 적힌 안설의 내용이 대략 이와 같다. 겐린이 안설을 통해 구축한 일본의 역사적 이미지가 조선 문헌에 기록된 것과 다르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는 조선 문헌에 기록된 일부 사실들을 부정하는 것을 통해 일본의 위상을 바꾸려고 하였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일본은 한반도와 통혼한 나라가 아니다. 또 삼한은 대대적으로 일본에 부속하였고 탐라국은 일본에 조공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사신을 보냈다는 몇몇 기록을 부인하면서 특히 굶주림으로 일본 기민(饑民)이 한반도에 왔다는 기록도 부정하였다. 한편 겐린은 왜구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왜구가 곧 일본인이 아니라는 주장이 도출될 것이다.

겐린은 연대를 비정하는 안설을 통해 일본식 천황 기년 체계를 수립하려고 하였으며 또한 조선의 역사서술 체계에서 일본의 역사적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던 것으로 보여 진다. 그는 안설에서 일본을 신이 수호하는 나라라고 역설하였다. 천하의 기이한 경관이 있을뿐더러 의술도 대단하다고 하였다. 요컨대 안설을 통해 겐린은 일본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였다.

IV. 『이칭일본전』에 나타난 조선관(朝鮮觀)

이상으로 『이칭일본전』 속의 ‘조선’과 ‘일본’에 대해 어느 정도 해명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이제 겐린의 이와 같은 작업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생각해볼 차례이다. 이 책의 문헌적 가치, 편찬 방식이 후세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 연구에서 언급되었고 본고의 서론에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 정리하였다. 여기에서 논의 되어야 할 ‘의미’는 『이칭일본전』 속의 ‘조선과 일본’에 초점에 맞춰져야 하니, 앞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겐린의 조선 인식에 대해 조금 더 짚어볼까 한다.

사실 겐린은 조선통신사를 만난 적이 있다. 1682년 조선은 새로운 관백(關白)의 습직을 축하하는 통신사를 파견하였다. 473명의 사행원으로 구성된 통신사는 흔히 ‘임술통신사(壬戌通信使)’라고 불린다. 당시 오사카(大阪)의 본원사(本願寺)에서 겐린이 조선에서 문명이 높았던 위항시인 흥세태

(洪世泰, 1653~1725)와 시를 수창한 적이 있다. 두 사람이 수창한 시는 나중에 『화한창수집(和韓唱酬集)』에 수록되었다.⁶⁸⁾ 겐린이 쓴 <창랑공 관하에서 봉정한다(奉呈滄浪公館下)>에는 짙막한 시서(詩序)가 있다.

일찍이 『일본서기(日本書紀)』를 비롯한 책들을 읽었는데 삼한과 부상(扶桑)이 통호(通好)한 일이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행히 오늘 삼한에서 온 분을 알게 되어 절구(絶句) 한 수를 지어 감사의 뜻을 전하겠다.⁶⁹⁾

이 글에 적힌 내용에 따르면 겐린은 조선에 대한 지식을 주로 일본의 역사서를 통해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두 나라가 오래전부터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칭일본전』이 30년에 걸친 편찬 작업을 통해 1688년에 편찬된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때 겐린이 보여준 조선에 대한 언급은 외교의 장에서 지켜야 하는 예의의 표시이며, 관련 문구들도 시를 화답하는 자리에서 사용하는 관용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겐린의 조선관이 구체성을 가지고 형성되었던 것은 『이칭일본전』을 편찬하는 과정에서였다고 생각된다. 특히 이 책의 안설을 통해 그가 조선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명확하게 표현하였다. 겐린의 조선관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다.

겐린은 한반도 역사의 여러 나라를 일본의 조공국으로 보았다. 그는 몽고의 일본 원정(遠征) 관련 기사를 인용한 다음에 “고려는 대대적으로 일본의 부용국(附庸國)이다.”라고 말했다.⁷⁰⁾ 그의 주장을 따르면 일본과 신라, 고려를 비롯한 한반도 나라의 관계는 대등한 것이 아니다. 일본은 신이 수호한 나라로서 한반도의 여러 나라보다 당연히 우월하다는 것이다. 이는 여러 안설에서 드러난 우월감을 통해서도 입증할 수 있다. 그의 이와 같은 우

68) 겐린이 일찍이 조선통신사 홍세태와 시를 창화했다는 사실에 대해 向井謙三의 글에서 밝힌 바 있다. 그리고 『和韓唱酬集』에 관하여 한태문의 『1628년 통신사 필담창화집 『和韓唱酬集』에 반영된 한일문화교류 연구』, 『한국민족문화』 7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1과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韓客酬唱』 연구』, 『항도부산』 33, 부산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2017을 참고할 수 있다.

69) “嘗讀『日本書紀』等書，三韓扶桑通好尙矣。今幸獲識韓，賦一絕奉謝。”(向井謙三, 앞의 논문 566면, 재인용)

70) 松下見林, 『異稱日本傳』 영인본, 東京: 國書刊行會, 1926, 1172면. “高麗世爲日本附庸”.

월감은 신공황후의 삼한 정벌 전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이칭일본전』 하권의 첫 번째 안설이 바로 『일본서기』에서 대폭 인용한 신공황후 관련 설화이다.

겐린은 조선 문헌에서 일본을 저평가하거나 비판적으로 언급하는 기록에 대해 역시 비판적인 안설을 달았다. 예를 들어 그는 김안국의 <대마도주에게 답한 편지(答對馬島主書)>를 인용한 후 원문 속의 일부 언급이 “거만하고 남을 업신여긴 것이다.”⁷¹⁾라고 하였다. 또한 『진산세고』 속의 <일본 철쭉화>를 인용한 후 그는 “예전에 우리 일본왕실이 성대할 적에 신라국에서 배 열 척에 조공품을 가져와 바쳤다. 그러나 그들이 이를 모른다. 지금 아시카가 씨(足利氏)가 쇠퇴할 시기에 처하고 있다. 그들에게 두견화 몇 그루를 보내주었더니 그들이 그것을 스스로 자랑한다. 이는 구걸하는 제나라 사람이 염치없이 자기 처첩에게 잘난 척하는 것과 같지 않은가.”⁷²⁾라고 하였다. 인용한 시는 일본에서 보내온 척축화를 읊은 것인데, 겐린은 이를 매일 거리에서 걸식하는 제인(齊人)이 집에 와서 처첩에게 잘난 척한다는 전고를 인용하여 조선을 폄훼하였다. 이처럼 조선의 것을 폄하하고 일본의 것을 자랑하는 데서 그의 우월감이 확인된다.

겐린은 조선의 관찬 역사서에 일본과 관련하여 오류가 많아 다 믿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평어들을 통해 겐린이 조선 쪽 기록을 불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회의적이고 불신하는 태도는 그의 자국중심주의적 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겐린의 조선 인식과 관련하여 발해국 문제도 특기할만하다. 그는 발해사를 조선의 역사로 보고 있었다. 그는 안설에서 『삼국사기』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적었다. “발해국은 고구려의 별종이다. 고구려가 쇠퇴하자 그 땅이 발해에 귀속된 것이 많았다.”⁷³⁾

겐린이 살았던 시대에 잘 알려진 학자로는 쿠마자와 반잔(熊澤蕃山, 1619~1691), 야마가 소코(山鹿素行, 1622~1685), 이토 진사이(伊藤仁齋, 1627~1705),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 1657~1725), 승려 게이쥬(契沖,

71) 위의 책, 1330면, “自高大輕慢他也”.

72) 위의 책, 1386면. “昔我王室之盛, 新羅國輸入十艘之貢, 彼爲不知之. 今足利氏之衰, 贈杜鵑花數盆, 彼以自誇大, 此猶齊人驕妾婦之類乎?”

73) 위의 책, 1288면. “渤海國, 高麗別種也. 及高麗衰, 其地多入渤海.”

1640~1701),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 1668~1755)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몇몇 학자의 조선관에 대한 논의가 이미 기존연구에서 다룬 바 있다.⁷⁴⁾

쿠마자와 반잔은 17세기 후반의 대표적인 양명학자이다. 그는 조선, 유구(琉球)와 일본 중에서 일본이 가장 우수하다고 보았다. 또 동이(東夷) 중에서 일본이 가장 우수하다고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조선을 들었다. 그는 조선을 폄하하는 근거 중 하나를 진구 황후의 삼한정벌(三韓征伐) 설화에 두고 있다.

야마가 소코는 일본 중심주의적인 경향을 지닌 사상가로 조선을 일본의 속국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일본서기』에 나오는 신화나 설화에 두고 있다. 소코가 제출한 화이론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일본을 ‘중화’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사실 겐린도 『이칭일본전』에서 진구 황후 설화를 여러 번 언급하였고 일본 사서에 나오는 전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였다. 겐린과 반잔, 소코 사이에 어떤 영향 관계가 있는지 더 확인해보아야 하지만 일본의 고대 전설이 지식인들의 대외인식 표출과 막부의 대외정책 결정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음은 분명하다.

에도시대를 대표하는 학자 중 한 명으로 일컬어지는 아라이 하쿠세키의 조선 인식이 표출된 것은 주로 통신사 영접에 관한 문제에서였다. 그는 일본측의 과도한 통신사 우대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그는 직위가 다른 통신사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예를 갖출 것을 주장하였는데, 그 논거가 되었던 것은 대등·호례(互禮)의 명분론이었다. 여기서는 조선을 조공국으로 보거나 멸시하는 태도는 포착되지 않았다.

겐린보다 늦게 태어났지만 1702년 즈음부터 왜관으로 활동하게 된 아메노모리 호슈는 조일교섭의 실무에 숙달했던 전문가였다. 그의 조선관은 현실적이고 실리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가 강조했던 것은 한일 양국의 풍습과 문화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며, 상대방에 대한 바른 인식과 지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호슈는 이 시기 조선멸시관을 탈피한 대표적인 사상가라 할 수 있다.

74) 이하 에도시대 학자들의 조선관에 대한 서술이 주로 하우봉의 『조선 후기 한국과 일본의 상호인식』, 『韓國思想史學』 27, 한국사상사학회, 2006을 참조하였다.

동시대 기타 일본학자들의 조선관과 비교하면 겐린의 조선관은 과격하고 극단적인 부분이 없지 않다. 비록 동시대 학자들에게서 조선멸시관을 확인할 수 있지만 겐린처럼 조선 문헌 기록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고 그것의 진실성을 지적하고 비판하며 조선을 폄하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겐린의 조선관은 비슷한 시기 여타 일본 지식인의 조선관과는 또 다른 일면이라고 할 수 있다.

V. 결론

본고는 『이칭일본전』의 하권을 대상으로 하여 ‘조선’과 ‘일본’이 어떤 시각에서 서술되고 있는지 밝히는 작업을 목표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책에 채록된 조선의 기록들이 어떠한 일본상을 보여주었는지, 또 이러한 기록들에 대해 편찬자 마쓰시타 겐린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알아보는 것이 바로 본고의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으로 우선 마쓰시타 겐린의 저술 활동을 통해 그의 학문적 경향을 살펴보았다. 겐린이 편찬하거나 교각·간인한 서적은 30여 종에 이른다. 그는 역사, 신도, 왕릉, 풍속, 유적, 국어, 목록, 시경, 의학,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술 및 편찬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사실 모든 성과는 ‘일본 연구’를 지향하고 있으며 일본중심적인 학문 경향이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그리고 주로 문헌학적인 방법으로 연구대상에 접근하는 것도 겐린의 학문적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칭일본전』은 겐린의 대표작으로 알려져 있다. 이 책의 하권에서는 15종의 조선 문헌 속에서 일본과 관련된 기사를 529조나 발췌하여 인용하였다. 그리고 수록한 문헌과 조목에 따라 편찬자의 고증이나 주관적인 견해를 밝히는 안설이 252개 정도로 집계된다. 그러나 일정한 체계를 갖추지 않아서 편찬자의 주관적 태도나 관점을 파악하려면 안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아야 했다. 그 결과, 조선 문헌에 기록된 일본 관련 기사에 대해 겐린은 자국의 입장에서 인용문 내용과 다른 견해를 내놓곤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채록된 조선 문헌 속의 일본 관련 기사 가운데는 왜구와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 일본의 역사적 이미지가 위협스러운 왜구로 대변되며 강탈적이고 비문명적으로 보여지게 되었다. 비록 사신들과 시문을 수장하는 문화 교류의 성과도 확인할 수 있지만 그보다 임진왜란과 관련된 기록에서 보인 일본의 강대한 군사력과 전쟁 과정에서 드러난 잔인함과 교활함이 더욱 인상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자국 관련 기록에 대해 마쓰시타 겐린은 안설이라는 학문적 형식을 택하여 대응에 나섰다. 그는 일본에서 사신을 보냈다는 일부 기록을 부인하였는데, 특히 일본이 한반도에 사신을 보내 청혼했다는 기록을 부정하였다. 또 삼한은 일본의 부용국이라고 하였으며 탐라국은 일본에 조공하는 나라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굶주린 일본 백성이 한반도에 와서 먹을 것을 구했다는 기록도 거짓이라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겐린은 왜구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였는데 왜구와 일본의 연관성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겐린은 조선 문헌 속의 일부 기록들을 부정하고 자국의 입장에서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였다.

한편, 겐린은 안설을 통해 일본의 위상을 높이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그는 상당한 공을 들여 조선 측 기록에 표기된 연대를 전부 일본식 기년으로 비정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일본식 천황 기년 체계를 구축·확립하는데 이바지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의 역사 서술 체계 내에서 일본의 역사적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안설에서 일본이 신이 수호하는 나라라고 역설하였다. 그리고 일본에는 천하의 기이한 경관이 있을뿐더러 의술도 대단하다고 하였다.

겐린의 조선관은 과격하고 극단적인 면이 있다. 17세기 중후반에 활동한 에도시대 학자들과 비교할 때 겐린 조선관의 가장 큰 특징은 조선 문헌에 밀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안설에서 일본 문헌을 근거로 삼아 조선 문헌 속의 일본 관련 기록을 조목조목 따지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양국의 문헌이 그의 일본중심적인 사고와 조선멸시관의 기반이 되었다. 조선 문헌 기록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다시 그가 조선을 하시(下視)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가 수행한 역사고증 방법이 졸렬한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일본 지식인 조선관의 색다른 일면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

미국 학자 로널드 토비는 겐린이 일찍이 한중일 문헌을 모아 『이칭일본전』과 같은 사료 총집을 만들었다는 점을 두고 겐린의 ‘국제적 시야’를 높이 평가하였다. 로널드는 겐린이 다른 문헌으로부터 자극을 받아 이러한 편찬 작업을 수행했을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그러나 겐린의 입장에서 보자면, 타국이 일본을 어떻게 보았는지 조사하는 것은 사실 자국에 대한 연구 작업의 일환이었다. 중세 신국사상을 추앙했던 겐린은 다른 나라 문헌 속의 일본과 관련된 기록을 수집하면서 자신이 바라던 일본상과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한 ‘거리’에 대한 겐린의 대응이 모두 ‘안설’을 통해 이루어졌다. 겐린은 자신이 수궁할 수 없는 외국 문헌 속의 기록들을 조목조목 따지고 변증하였다.

하지만 그의 안설은 과연 그 ‘거리’를 좁히거나 지웠을까. 고증 방법에 보인 결함들이 선명하다. 그가 안설을 통해 밝힌 자신의 견해 중 상당 부분은 조선의 기록들과 대립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겐린이 『이칭일본전』 서문에서 밝힌 편찬 목표에 대한 기대를 안고 이 책을 열독한다면 찬자의 편찬 목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이칭일본전』 하권에서 우리는 대립되는 두 개의 ‘일본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겐린의 조선관은 조선 문헌과 역사 고증을 기반으로 삼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실은 일본의 역사적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과정에서 형성된 것에 불과하다. 조선이라는 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겐린의 조선관에 대해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칭일본전』 상권과 중권에서는 중국 문헌을 인용하며 안설을 통해 고증을 시도하였다. 그렇다면 중국에 대한 겐린의 시각이 조선관, 일본관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가 궁금해진다. 여기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한다.

참고문헌

1. 자료

- 丁若鏞, 『與猶堂全書』, 한국고전종합DB.
東條耕, 『先哲叢談續編』, 1884 간행,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韓致淵, 『海東釋史』 필사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李裕元, 『林下筆記』, 한국고전종합DB.
柳成龍, 『懲毖錄』 일본목판본, 元祿8년 간행(1695),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申叔舟, 『海東諸國記』, 한국고전종합DB.
松下見林, 『異稱日本傳』 영인본, 東京: 國書刊行會, 1926.
_____, 『國朝佳節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徐居正 등, 『東國通鑑』, 동방미디어 koreaA2Z.
_____, 『東文選』, 한국고전종합DB.

2. 단행본

- 김시덕, 『전쟁의 문헌학』(ebook), 열린책들, 2021.
田中健夫 著, 楊翰球 譯, 『倭寇—海上歷史』,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5.

3. 논문

- 김려화, 『『해동역사』 『예문지』의 문헌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손유경, 『慕齋 金安國의 對日認識』, 『漢文古典研究』 19, 한국한문고전학회, 2009, 3
1~53면.
이유리, 『『倭人求請謄錄』에 나타난 조선 서적의 일본 전래』, 『서지학보』 37, 한국서지
학회, 2011, 105~135면.
이효원, 『일본 유학자의 조선 연구-伊藤東涯의 『三韓紀略』에 대하여』, 『한국한문학
연구』 66, 한국한문학회, 2017, 105~144면.
정순일, 『『三韓紀略』의 고대사 서술과 한일관계 인식』, 『사학연구』 129, 한국사학회,
2018, 61~105면.
하우봉, 『조선 후기 한국과 일본의 상호인식』, 『韓國思想史學』 27, 한국사상사학회,
2006, 25~63면.
한태문, 『1628년 통신사 필담장화집 『和韓唱酬集』에 반영된 한일문화교류 연구』, 『한
국민족문화』 78,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1, 65~101면.
_____, 『국립해양박물관 소장 『韓客酬唱』 연구』, 『항도부산』 33, 부산광역시 시사편
찬위원회, 2017, 1~32면.

- ロナルド・トビ(Ronald Paul Toby), 『松下見林の元祿型國際史學』, 『異文化理解の視座』(小島孝之・小松親次郎 編,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2003, 57~64면.
- 阿部邦男, 『松下見林著『前王廟陵記』の成立と後世への影響』, 『皇學館論叢』 28(5), 皇學館大學人文學會, 1996, 1~22면.
- _____, 『松下見林の『前王廟陵記』撰述の機縁』, 『皇學館論叢』 32(2), 皇學館大學人文學會, 2000, 1~22면.
- 福井款彦, 『神道學者としての松下見林-その神社研究をめぐって』, 『神道史研究』 35(3), 神道史學會, 1987, 198~216면.
- 今井啓一, 『松下見林と異稱日本傳』, 『立命館大學論叢』 6, 『歴史地理篇』 2, 1942, 立命館出版部, 109~149면.
- 蓮沼啓介, 『異稱日本傳注釋(梁書編)』, 『神戸法學雜誌』 54(2), 神戸法學會, 2004, 207~238면.
- _____, 『異稱日本傳注釋(晉書編)』, 『神戸法學雜誌』 55(4), 神戸法學會, 2006, 41~46면.
- _____, 『異稱日本傳注釋(宋書編)』, 『神戸法學雜誌』 55(3), 神戸法學會, 2005, 45~73면.
- _____, 『異稱日本傳注釋(吳志編)』, 『神戸法學雜誌』 54(4), 神戸法學會, 2005, 329~341면.
- 杉山二郎, 『異稱日本傳』解説』, 『異稱日本傳』(松下見林 著, 東京: 國書刊行會, 1975, 1555~1559면.
- 向井謙三, 『松下見林と朝鮮文獻』(上), 『文獻報國』 8권 12호, 朝鮮總督府圖書館, 1942, 565~572면.
- _____, 『松下見林と朝鮮文獻』(中), 『文獻報國』 9권 1호, 朝鮮總督府圖書館, 1942, 7~12면.
- _____, 『松下見林と朝鮮文獻』(下), 『文獻報國』 9권 4호, 朝鮮總督府圖書館, 1942, 131~135면.
- 太田由佳, 『松下見林述・森中虛書『本草沿襲考』について』, 『近世京都』 3, 近世京都學會, 2019, 89~94면.
- 張小敏, 『伊藤仁齋與日本『詩經』學的轉向』, 『社會科學戰線』 (3), 2012, 147~150면.

4. 인터넷 사이트

百度百科, baike.baidu.com/

‘Joseon’ and ‘Japan’ in *Iyōu Nibōnden*(『異稱日本傳』)

Jin, Lihua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laborate the relevant situations of “Joseon” and “Japan” in *Iyōu Nibōnden*(『異稱日本傳』). This book was compiled by the scholar Matsushita Kenrin(松下見林) in the Edo era. Kenrin had written and compiled in various fields, including history, Shinto(神道), emperor’s mausoleum, customs, official history, Japanese linguistics, bibliography, Shijing(詩經), medicine, enlightenment pedagogy. However, all of his achievements were aimed at “Japanese research,” and there was a strong Japanese-centered academic tendency.

Article 529 of articles related to Japan was included in the *Iyōu Nibōnden*. All were quoted from 15 ancient books of the Joseon.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contained literature and items, there are about 252 Anseol(按說) expressing the author’s historical or subjective views. Japan’s historical image is represented by Japanese pirates through articles related to Japan in the documented Joseon. Their images had come to be seen as extortionate and uncivilized. In response to these records, Kenrin(見林) chose an academic form called Anseol to respond. He denied some of the records in the Joseon literature and tried to correct them from the standpoint of his country. He also attempted to despise Joseon and raise Japan’s status through the Anseol.

Kenrin’s view of Joseon was radical and extreme. Compared to Japanese scholars who were active at the same time, the biggest characteristic of the Kenrin’s perception of Joseon was that it was closely attached to the Joseon literature. His method of historical examination had a poor side. However, it was meaningful that Japanese intellectuals at that time showed a different side of their perception of Joseon.

Keywords: Matsushita Kenrin(松下見林), *Iyōu Nibōnden*(『異稱日本傳』), Classical Books of Joseon, Image of Japan, Recognition of Joseon

접수일자: 2022. 9. 30.
심사기간: 2022. 10. 1.~2022. 11. 10.
게재결정: 2022. 11. 10.